JUL 1 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74 1982년 7월 14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July 1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인장로·모나미 공동우승

신진 백마에 무너진 화랑 3연패

교민축구 개인상 정기섭, 장광휘

◆골문전에서 혼전을 벌이고있는 OB부 벧엘교회와 에덴침례교회의 결승전.

대한체육회장배장탈 제4회 교민친선축구대회에서 한인장로교회와 모나미팀은 청소년부 공동우승을, 벧엘교회는 장년부(OB) 우승을 차지했다.

10일 센테니알·파에서 열린 한인축구협회 (회장 고광남) 주최, 토너먼트대회 청소년부 결승에서는 후반전 장로교가 페날티·킥으로 1점을 선취, 승리를 굳히는 것으로 보였으나, 게임종료 4분전 모나미가 귀중한 페날티·킥을 득점에 연결, 1대1로 비기자 10분간씩의 연장전에 들어갔다.

정세용주심은 연장전 5분경인 밤9시13분 날이 어두워져 게임을 계속시키기 힘들어지자, 주심권한으로 공동우승을 선언했다.

청소년 결승전은 바로 직전같은 구장에서 열린 장년부 결승전에 비해 스피드, 테크닉, 스테미나등 모든 면에서 큰 대조를 보여 관중의 감탄을 낳았다.

청소년부 3·4위전서 청솔은 백마를 2:1로 물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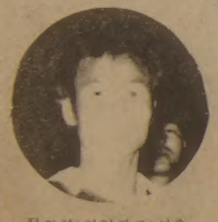
1회 대회에서 정우가 승리한후, 80년및 81년 연승, 금년도에 3연승을 노린 화랑은 무명 백마에 2:1로 패해 우승컵 영구 소유꿈이 깨졌고, 왕년에 날리던 청솔이 신진 모나미에 3:1로 격침당한 것은 모두 노장들이 어린 청소년에 밀려나는 것으로 풀이됐다.

모나미는 모나미·트로피(대표 이기훈)회사가 스폰서를 서고 정기섭·석남일등이 중심되어 급히 구성된 팀이며, 백마도 이대회를 계기로 모아진 팀이다.

이들과 한인장로팀 중에는 수년전만해도 나이가 어려 같이 뛸 수 없던 선수들이 많다. 한편 OB결승전서 정태진담임목사까지 뛴 에덴침례교회 벧엘팀에게 전반서 1점을 빼앗긴 후 후반서는 완연한 우세를 보였으나, 골키퍼의 자살골이 추가돼 2:0으로 격침됐다.

OB전은 총영사배 쟁탈전으로 79년 해병전우회에 이어 80년·81년 연승한 청솔이 이번에는 장년부에 출전치 않았다. 총 12개팀이 출전한 이번대회는 시종 질서있게 진행됐다.

◆최우수선수


장광휘(한인장로)선수

정기섭(모나미)선수

장년(OB)부

1. 벧 엘
2. 에덴침례
3. 동부장로

벧엘 : 동부장로=1:0
에덴침례:블루어번영회=1:0
벧엘 : 에덴=2:0(1·2전)
동부장로:번영회=1:0(3·4위전)

청소년부

1. 한인장로
1. 모 나 미
3. 청 솔

▲예선
◉B구장
백마:화랑=2:1
한인장로:영락=한인장로 기권승
◉C구장
모나미:제일장로=2:1
서브마린:침례=2:1
청솔=무시합 준준결승 진출
▲준준결
청솔:서브마린=6:0
▲준결
한인장로:백마=3:1
모나미:청솔=3:1
청솔:백마=2:1(3·4위전)
▲결승
모나미:한인장로=1:1(공동우승)
▲개인상
◉최우수선수
모나미팀 정기섭
한인장로 장광휘
◉수비 함철근(모나미)
◉공격 장광용(한인장로)
◉감투 호성수(청솔:15세 최연소선수)
▲응원상=벧엘교회

◆청소년부에서 공동 우승한 한인장로팀의 장광휘주장(왼쪽)과 모나미팀 선수가 우승트로피와 우승기를 나누어 가졌다.

북한, 또 어선납북

어부 35명, 울릉도근해서

휴전후 421척 뺏어가

(서울13일=연합)35명의 어부를 태운 어선 1척이 13일 정오경 동해안 울릉도 북동쪽 170마일 지점에서 북한 순시선에 의해 납치됐다고 한국 수산청이 13일 발표했다.

수산청은 114.4톤급 어선 마산호가 조업중 북한순시선의 습격을 받았고, 순시선의 북한군 4명은 마산호가 북한으로향진토록 총으로 위협, 납치했다고 밝혔다.

마산호는 공해지역의 태화도 어장에서 조업중인 170척 한국어선중의 하나이다.

1주일전에도 한국어선 1척이 북한순시선의 총격을 받고 남쪽으로 도피한 사건이 있었다.

1953년휴전 협정이후 북한은 453척의 어선·3,554명의 선원들을 납치해 갔으나, 이중 겨우 32척·407명의 선원만 돌려보냈다.

캐나다·데이 법안

불과 5분만에 통과

(오타와)7월1일 「도미니언·데이」라고 불리우는 공휴일의 이름에서 영국식민지 냄새를 제거, 「캐나다·데이」라고 개칭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16일 연방하원에서 불과 5분만에 통과됐다. 법안을 이송받은 상원은 이를 오는 20일 본의회에 상정, 여름휴가 휴회전 통과시킬 예정이다.

퀘백주 출신 자유당의원이 개인적으로 제안한 이 법안에 대해, 야당 보수당의 고든·테일러 원내부총무(알버타출신)는 "이 법안은 사전 충분한 공고없이, 또 성원미달의 사태에서 불법적으로 통과됐다. 이것은 우리의 법제도에서 앵글로·삭슨적인 것은 모두 제거하려는 또 하나의 본보기다"라고 비난했다.

7월1일은 캐나다가 연방을 구성, 국가가 탄생된 날이다.

간호원 천여명

미국 취업할듯

(서울10일=연합)1천여명 이상의 한국간호원들이 앞으로 2·3개월내에 미국에 취업할 것이라고 10일 노동부가 밝혔다.

시카고에 본부를 둔 취업알선업체 PAC는, 최근 한국해외개발공사에 간호원 선발을 요청했다. 이들이 미국 간호원자격 시험에 통과하면 $9.50, 불합격되면 시간당 $8.50의 임금을 받는다.

21세여인 생일에 죽어

6주중 4번째 여인피살사건

토론토의 레스리×먼다스근처에서 크로디아·기버츠양이 21세 생일인 12일 하오3시30분 칼에 찔린 시체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토론토에서 최근 6주간 발생한 4번째 여성 피살사건이다.

알몸의 기버츠양은 자기가 살던 3층집 포렛의 방에 가득찬 피바다에 엎어져 있었다.

경찰은 기버츠양이 서너군데 칼에 찔렸다고 밝혔으나, 성적 침해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온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9월26일 결혼하기 위해 메뉴, 밴드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아버지 디터씨가 애통해했다.

기버츠양과 함께살던 약혼자 찰스·보이드(35·컴퓨터프로그래머)씨 생일은 지난 9일이어서 양측집 가족들은 11일 모여 합동생일 파티를 가졌다.

기버츠양은 최근 2번 절도를 맞아, 2주전에는 모든 보석패물을 도난당했다. 기버츠양의 전 보이·프렌드는 이날아침 그녀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가 사건을 처음 발견했다. 이웃사람들은 기버츠양의 거처에 여자2명, 남자1명이 함께 살았다고 말했다.

◆크로디아·기버츠양

〈사 고〉

한인민족상 시상식

17일(토) 하오4시
토론토 한인회관

한인민족상위원회
토론토 한국일보사

올림픽 유치기념

은화90억원 발행

(서울13일=연합)한국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88년 올림픽의 서울 유치를 결정한 날인 작년9월30일을 기념하기 위해 250만개의 은화를 발행한다.

모두 90억원어치의 기념은화는 천원, 만원, 2만원짜리들이다.

암달러 계속 올라

미화 $1=840원

(서울13일=연합)7월3일 이후 오른 암달러시세는 13일 미화1달러당 840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83년부터 모든 금융거래를 기명으로 하기로 한 이후 암거래 달러의 가치는 계속 상승, 공정환율인 1달러당 743원보다 거의 100원이 높아졌다.

과학기술자 회의

해외학자 백여명

(서울13일=연합)한국과학기술 심포지엄이 13일 2,600명의 국내외 과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개막됐다.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한 해외과학자들이 백여명 참석한 이번대회는, 한·미수교 1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맹과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것이다.

오늘의 예금금리 (6월 23일부터)

종 별	기 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89일	15%	14.5%
	90~179일	15.75%	15.5%
	180~365일	16%	15.2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더 드립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 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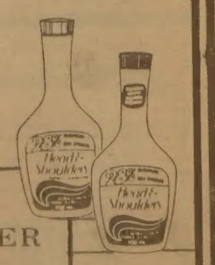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FAMILY PRODUCTS DISTRIBUTOR
87 Greenlane Unit 10 Thornhill ☎ : 889-9757 · 366-7093

품목 : Paper Towels, Facial Tissues, Bathroom Tissues, Detergent, Garbage Bags, Diapers, Soap etc. ···
FREE DELIVERY ($60이상 주문인 경우)

Can Save you Time and Money
Pick-Up or Fast Delivery

ALL 7 SIZES



★HEAD & SHOULDER
28% 보너스
12×350ml + 100ml.
$40.72/case

★CAPRI
24×2's
Bathroom Tissue
1 Ply - white
48 rolls/case
$12.19

★NEW MASTER
Liquid Dishwashing Detergent
12×680 ml. · $10.68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e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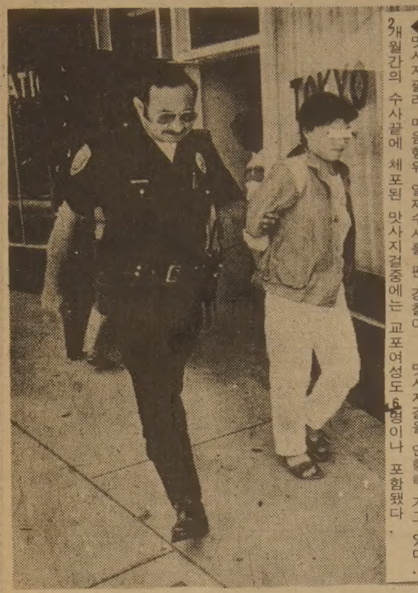
17개 매음"맛사지·팔러"급습

한국 여성 6명등 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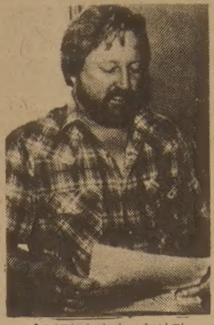
미합동수사반 손님가장 함정수사, 20~49세 여인

◇〈벤추라카운티시-LA지사〉박희서·임홍철기자〉벤추라카운티에 맛사지팔러를 차려놓고 매음행위를 하던 한국여인 6명을 포함,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벤추라카운티 쉐리프, 경찰및 옥스나드경찰 합동수사반은 7일하오 벤추라와 옥스나드 및 오하이의 익제큐티브등 17개 맛사지팔러를 급습했다.

15명으로 구성된 수사반은 "맛사지팔러에서 매춘이 성행하고 있다"는 이지역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지난 5월17일부터 함정수



◆맛사지팔러 매음행위 일제수사를 편 경찰이 맛사지걸을 연행해 가고 있다. 2개월간의 수사끝에 체포된 맛사지걸중에는 교포여성도 6명이나 포함됐다.



◆필립타이너 수사관

체포못한 7명은 백인계 "앞으로 계속 수사할터"

사를 펴 이날 혐의자 17명중 10명을 체포했는데, 아직 체포하지 못한 7명은 백인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반은 '2개월간 손님으로 가장, 요금을 내고 맛사지를 받았으며, 맛사지가 끝난후 매음을 제의하는 맛사지걸들을 일일이 파악,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들이닥쳤는데, 일부 팔러에서는 아예 입장료에 매음비까지 포함시켜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벤추라카운티 쉐리프 투테넌딕·브라이스는 "현재 이 지역에 있는 팔러중 적법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1~2개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근절될때 까지 수사를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음 맛사지팔러 수사를 위해 수사반은 벤추라의 12개, 옥스나드의 4개, 그리고 오하이의 1개등 17개 팔러를 번갈아 돌며 증거를 수집했는데, 매음의 소굴인 문제의 맛사지팔러는 현재도 영업중에 있다. 그런데 이들 팔러는 모두 번잡한 상업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 곳은 기독교청소년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이 단체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아왔다.

이날 체포된 맛사지걸들은 20~49세의 연령층으로 7일밤 각자 2천5백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왔는데, 예비심문은 21일 상오8시15분 벤추라카운티 법정서 열린다.

망신당한 한국라이온스

제65차총회 국제이사입후보 낙선

〈시카고지사〉시카고 남서부교외 오크브룩에 본부를 둔 국제 라이온스클럽의 제65차 정기총회에서 한국측 대표단이 관례에 벗어난 국제 이사후보 출마를 무리하게 시도했다가 결국 낙선, 소기의 목적이었던 88년도 라이온스대회의 서울유치 계획도 무산된채 국제적인 망신만 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지난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열린 국제라이온스클럽의 총회에는 전세계 8개지구에서 2만5천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는데, 한국에서도 양준모총재가 이끄는 1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총회에서는 2년 임기의 총재와 국제이사를 개선했는데, 신임총재에는 에버렛 J.그라인드스타프씨(미국 텍사스주)가 당선됐으며, 국제이사는 8개지구별로 관례에 따라 선임이 됐다.

라이온스클럽의 국제이사는 각지구별 소속국가에서 돌아가며 선임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이러한 관례를 무시한채 별도의 후보를 내세워 라이온스클럽의 8개지구 가운데 한국이 속한 「동남아지구」만이 유일하게 국제이사 선거를 실시했다.

한국대표단은 83년3월의 국제이사회에서 88년도 국제대회의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때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해 관례에 따라 클럽측이 동남아주의 국제이사를 태국과 대만에 배정한 결정을 무시한채 양준모씨를 후보에 내세워 득표운동을 벌였던 것.

그러나 관례를 무시한 선거결과 양준모후보는 1천679표를 득표, 3천표 이상씩을 얻은 태국과 대만의 후보에게 결국 패하고 말았으며, 이에 따라 한국측은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국제적인 관례를 무시했다"는 비난만 받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 동남아지구의 국제이사직을 태국과 대만이 배정받은 것은 전임 무리까미 총재가 양준모한국총재에게 월5천달러의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데에 따른 후속조처라는 뒷얘기도 나돌고 있으나, 어쨌든 무리한 입후보로 국제여론만 나쁘게 만드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구나 지난 80년 총회때에도 당시의 김용우한국총재가 관례를 무시한 채 국제이사에 출마하여 빈축을 샀던 일이 있는데, 당시에는 다행히 당선이라도 됐으나, 이번에는 당선조차 되질 못해 국제적인 망신만 사고 말았다.

장인수씨 78점

크린톤하우스 골프

볼루어·스트릿의 클링톤·하우스(대표 김영규)는 11일 곱리골프장에서 제2회 클링톤·하우스 골프대회를 개최, 장인수씨가 78점으로 금년도 챔피온이 됐다.

케네디안등 39명이 참가한 고객을 위한 친선대회에서 박영철부총영사는 76점으로 최저 점수를 기록했으나, 시상대상에서 자진 사퇴했다.

작년도 캐슬모어에서 열린 대회의 챔피온은 박기복씨였다. 이날밤 클링톤·하우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교포가 그로스부문과 넷부문을 모조리 차지했다.

▲그로스
1위 장인수 78
2위 한강국 80
3위 박종선 80

▲넷
1위 김진형
2위 박경덕
3위 김용기

▲롱게스트 에를·프레이저
▲니어리스트 프랭크·트런치

한국일보
533-2361

"여름철을 즐겁게"

토론토 주변의 어린이 낙원들 ①

◆어린이와 여름은 베이컨과 달걀, 바늘과 실처럼 자연스러운 앙상블을 이룬다. 적어도 메트로토론토의 여름은 어린이들의 천국이다. 수많은 공원, 수영장,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 앞으로 2~3개월동안 어린이들이 즐길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과거와의 재회

조상들의 족보에서 시작-옛날집, 묘지들을 둘러보고, 옛날 공예기술과 게임등을 익히는 이 프로그램은 9~11살 상대로 상오9시30분~12시까지 5회에걸쳐 실시된다. 장소는 몽고메리·인(Montgomery's Inn=Dundas St. W. Etobicoke). 등록금은 $20. 문의는 236-1046(Mrs. Berry).

◆흠팁의 뿌리

엑시비션·스태디엄(Exhibition Stadium)에 앉아 취미에 따라 $2에 블루제이스의 야구나, $3에 블리자드축구를 즐길 수 있다.

◆보우트 타기

7월11일의 보우트경기를 하버프론트(Harbour Front)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곳에선 50센트에 30분동안의 카누(Canoe)레슨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하버프론트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 여러가지 특별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364-7127.

◆정원탐사

나무와 꽃, 잔디, 개울 그리고 작은 폭포처럼 더 여름적인 것이 있을까?

위의 모든것을 즐기려면 토론토 제라드·스트릿(Gerrard St.)에 있는 「앨랜가든」(Allan Garden), 이토비콕 이든브릿지 드라이브(Edenbridge Drive)옆의 「제임스 가든」(James Garden)이나, 돈밀스의 로렌스 애비뉴(Lawrence Ave)에 있는 「에드워드가든」(Edward Garden)을 찾으면 된다. 입장료는 무료.

◆암소와의 대면

토론토의 윈체스터스트릿(Winchester St.) 동쪽끝에 있는 리버데일 농장(Riverdale Farm)에서는 갖가지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다. 입장료는 없으며, 아침 9시부터 해질때까지 연다.

◆수영 배우기

무료수영강습에 대해서는 각 지역 레크레이션국에 문의하면 된다.

예를 들면, 토론토에는 전 시를 통해 32개 학교가 3 ft.(1m)이상의 어린이들에게 7월6일부터 6주코스 무료수영강습을 연다. 교습자 1명에 강습자 20명까지로 클래스를 이루며, 강습은 월~금 매일 30분씩. 공휴일은 쉰다. 부모와 유아를 위한 강습도 있다. 지역과 등록에 대한 문의는 598-4931 Local 315.

◆하룻동안의 개척자

제인스트릿(Jane St.)과 스틸스애비뉴(Steeles Ave) 에 있는 파이오니어·빌리지(Pioneer Village)는 7월과 8월을 통해 일주일내내 상오10시~하오6시 연다. 입장료는 어린이 $1.50, 어른 $4, 가족 당은 $8. 점심을 싸가지고 피크닉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며, 말이 끄는 마차를 무료로 타고, 개척시대의 거리와 집들, 유물들을 구경할 수 있다. 8월 첫3째 주말에는 여러 특별게임과 경기가 계획되고 있다.

◆스케이트 타기

스카보로의 센테니얼 아레나(Centennial Arena)에서는 로울러스케이트를 타고, 댄스하는 법을가르쳐 준다. 6주강습에 강습료는 $8. 스케이트 임대료는 75센트이다.

입장료 75센트를 내고, 매일 일반인을 위한 시간에 즐길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438-6850.

겨울의 차가움을 찾는 어린이는 25센트에 미드-스카보로 레크레이셔날 컴플렉스(Mid-Scarborough Recreational Complex)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 타는 시간은 금·토·일. 일반인을 위한 스케이트 시간. 문의는 264-3253.

스카보로 센테니얼센터(Centennial Centre)에서는 5~14세의 어린이를 위한 스케이팅 강습을 「아이스·갈락시·스케이팅·링크」(Ice Galaxy Skating Rink)에서 한다. 10회 레슨에 $22. 문의는 438-6850.

◆역사 속을 걷는다.

하루 $2로 8~14세 어린이는 매주 수요일 메켄지하우스(Mackenzie House)에서 열리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 올드·타운·오브·욕(Old Town of York)을 산보여행한 다음 그곳에서 직접 만든 쿠키와 레모네이드를 먹고, 1845년도 인쇄기를 사용, 인쇄도 해보고, 크로켓(croquet) 놀이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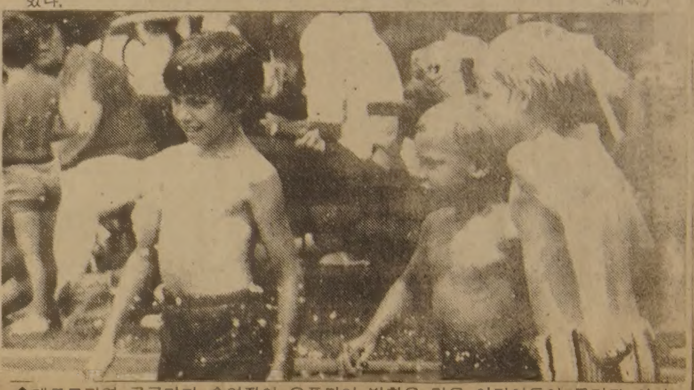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하이팍(High Park)의 콜본·로지(Colborne Lodge)에서도 열린다. 일주일에 3회, 아침에 열리는 이 프로그램에는 옛날식 빵굽기, 양모(wool) 염색, 실을 잣는 법, 양탄자 짜는 법과 스코틀랜드 댄스교습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의 2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Moyra Haney (595-1567)에게.

◆공상과학 뒤의 사실들

맥로인 천체과학관(The McLaughin Planetarium)은 「과학의 허구와 사실」(Science Fiction, Science Fact)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상영한다. 시간은 화~일요일 12:30, 1:45, 3:00, 7:45 P.M.

작자의 공상이 최근 우주자료와 비교된다. 6세이상 입장이 허용되며, 6~14세 어린이는 부모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입장료는 어린이 $1.75, 어른 $2.75.

(계속)



◆메트로지역 곳곳마다 수영장이 오픈되어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즐기고 있다.

캐나다를 압시다… 자랑거리 115개 ③

하이킹코스 브루스·트레일, 루이스호수

49국과 통화가능한 뛰어난 전화시설

30.레이저 돛단배

캐네디언 브루스·커비가 설계한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경주용 돛단배.

31.브루스·트레일(Bruce Trail)

나이아가라 부근서부터 조지안·베이의 터버머리까지의 700Km 하이킹·코스로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낮은 산기슭(구릉)으로 이어진 이 코스는 군데군데 표시가 잘돼 있고, 음료수등 시설이 갖춰져 있다. 67년개통.

32.미라미치강의 연어낚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연어낚시장의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미라미치강안. (동부해안)

33.쾌백의 악사들(Fiddlers)

쾌백의 거리의 악사들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성업중. 바이올린과 아코디언을 흥겹게 연주하면 행인들이 이에 맞추어 춤춘다.

34.전화

방안에 앉아 무려 49개국과 통화할 수 있고, 48시간전 요청하기만 하면 $25에 전화를 가설해 준다는 것은 캐나다가 자랑할 만한 것 중의 하나. 특히 전화를 맨처음 발명한 것은 약1세기전 온타리오주 브랜포드의 알렉산더·그래햄·벨이었으니 전화와 캐나다와의 인연은 각별하다.

33.
Quebec Fiddlers

34.
Telephones

35.머치의 차(Murchies Tea)

영국계 차회사 트윈닝즈, 잭슨즈, 포트넘, 메이슨도 유명하지만 뱅쿠버의 차회사 머치의 차종류는 무려 40여종으로그 맛이 기가 막히다.

36.당뇨병 치료

캐나다는 당뇨병 치료에 세계적 선구자. 토론토의 베스트박사가 인슐린을 발명, 수많은 생명을 건졌으며, 최근에는 인조 췌장까지 제조해냈다.

37.루이스호수의 해돋이

루이스호수에 해가 떠오르면 호면에 비친, 떠오르는 해와 어울려 2개의 해가 보는 이를 황홀하게 한다. 이 호수는 알프스보다 더 장관인 케네디안·로키산맥중에 있는 밴프근처에 있다.

42.
Children's Village, Ontario Place

38.엘로라의 아기침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아기침대. 온타리오주 엘로라(Elora)에 있는 엘로라가구회사 제품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침대. 편리하고 안전하다.

39.오카치즈

쾌백의 오카(Oka)에서 트래피스트(Trappist)파 수도사들이 제조한 치즈로 1세기이상 캐나다의 가장 맛있는 치즈로 손꼽힌다.

40.스노우모빌

눈속을 쌩쌩 달리는 스노우·모빌, 즉 눈자동차는 쾌백의 조셉·아망·봄바디에가 고안해 낸 것으로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오는 캐나다의 겨울나기에 안성맞춤.

41.체다·치즈(Cheddas Cheese)

애초에 영국에서 나왔으나, 오랫동안 캐나다의 특산물로 인정받아왔다. 온타리오주 볼더슨(Balderson)에서 생산되는 체다·치즈가 최고.

42.어린이 마을

토론토의 온타리오호수속에 세워진 온타리오·플레이스의 칠드런스·빌리지(Children's Village)는 토론토의 에릭·맥밀란이 설계, 1971년 개장한 이후 어린이 놀이터의 개념을 변경시켰다.

43.설리·매노론

뇌신경 마비자가 의사소통하는 기적적인 방법을 고안했다. 블리스·심블리스라고 불리는 이 특수방법은 사진을 주로 이용하며 전세계 3만여명이 이의 도움을 받고 있다.

44.서해안의 인디언 미술

서해안의 인디언들-하이다족과 크와키우틀족 이 만든 토템, 가면, 칼로새긴 상자들등은 고대 그리스예술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평을 듣는다. (계속)

38.
The Elora Crib

교민동정

◆김창열 (토론토한인YMCA 총무)=와이즈멘즈클럽 세계대회가 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리므로 그 대회 참가겸 모국방문차 지난 1일 떠났다. 아울러 서예가 이철경여사(전 금란여고 교장)의 토론토서예전 사전협의 임무도 띠고 있다.

약 한달간 머물고 귀임 예정이다

뉴욕↔서울간을 週4回 運航합니다.

6月1日부터 金曜日便 新設!

대한항공을 세계적인 항공사로 키워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 여러분의 모국 방문을
보다 편리하게 모시기 위해
서울←→뉴욕간 金曜日便을
新設 하였읍니다.
한국으로 가실때는 더욱 편해진
大韓航空을 이용해 주십시요.
정성껏 모시겠읍니다.

*하계운항 스케쥴 안내

*표는 6月1日부터 運航합니다.

KE 007	편명	KE 008
火·木·金*·日	요일	火·木·金*·日
23:55 ↓	뉴 욕	21:50 ↑
	(앵카리지)	
06:30 +2	서 울	19:00

정성껏 봉사하는 우리 민족의 날개
大韓航空

예약이나 자세한 문의는 대한항공이나 각 여행사로 해 주십시요

대한항공 ☎ (416) 862-8250
390 BAY ST. SUITE 720,
TORONTO, M5H2Y2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신세계여행사 536-2155
●한국여행사 531-4607

〈한맘교육강좌〉
복합문화사회에서의 한글교육 3

조 성 준(토론토한인교육연구회장)

◇조성준 씨

3)복합문화사회의 유래와 의미

캐나다는 이민으로 구성된 나라이고, 이런 이민들이 가지고 온 복합문화사회이다. 그러면 이민으로 구성된 미국은 왜 Melting Pot(전부 녹아서 하나의 큰 솥으로 구성된 사회)의 사회정책을 써왔는데, 어떻게 캐나다는 복합문화(Multicultural Society)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나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다.

미국과 캐나다는 퀘백주와 프랑스계 캐나다사람들을 빼어놓고는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아주많다. 즉 언어도 같은 영어를 쓰고, 제일 지배적인 다수도 영국계이고, 경제구조면에서도 상좌에는 영국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역시 다른점이 많은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독립전쟁을 치른 다음에 영국에서 부터 독립한 독립국으로 발전해 왔지만, 캐나다는 연방제를 수립한지 백년이 넘어도 자체의 정부와 의결기관이 있으면서도 최근까지 헌법이 없이 지내온 나라이다.

영·불 2대 문화권에 소수민족의 복합문화

이민정책면에서 미국은 일찌기 문화를 개방하여 유색인종을 받아들였지만, 캐나다는 한 20년전만 해도 유색인종 이민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캐나다 국무성에서 출판한 「Canadian Family Tree」라는 책자의 자료를 빌려보면 1887년부터 1914년 사이에 캐나다에 이민해온 이민자 수는 약 3백만이었는데, 이중에 동양계는 약 2만명 밖에 안되었다고 한다.

1885년에는 브리티쉬·콜럼비아주의 요청으로 캐나다 연방정부가 인두세(Head Tax)를 입법화하여 중국사람이 캐나다로 이민올때는 일인당 $50를 지불해야 했다. 수년후에는 인두세가 십배로 뛰어서 $500가 되었다.

1908년에는 Order-in-Council, 또는 the Continuous Voyage Regulation(계속항해 규정)을 입법화하여 동양계 사람들은 자기나라에서 캐나다로 직행(도중 정착없이)하는 선박을 타는 사람들 이외에는 이민을 안 받아주었다. 그 당시 동양나라 항구에서 캐나다로 직행하는 배는 아주 드물었을 것이다.

1923년에는 중국인이민법(Chinese Immigration Act)을 만들어 중국인 이민은 실제로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부터 새로운 이민법을 적용하여 유색인종 이민도 가능해졌고, 동시에 한국사람들의 이민도 급증가하게 되었으며, 중국·인도·파키스탄·카라비안 연해의 흑인들, 남미에서도 많은 이민자가 몰려왔고, 최근에는 인도적인 면에서 캐나다 이민정책이 유색인종 피난민을 많이 받아 들여왔다.

미국에서 "Melting Pot"이라는 어휘로 1909년 Zangwell 이라는 극작가가 처음으로 연극에서 쓴 어휘가 오늘날 미국의 사회정책을 간단히 묘사해 주고 있다. Melting pot의 의미를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새로 이민온 사람들은 미국의 새 가치관을 채택하고, 미국사회에 잘 동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해석하길 새로운 사람과 먼저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서로 한데 뭉쳐 녹아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 보자는데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각도에서 본다면, 미국이민 초창기에 지배적인 그룹은 영국계였는데, 유럽계통의 이민들이 와서 자기들의 고유의 전통이며 문화의 특색을 보유하고, 심지어는 자기들 모국에 까지 충성심을 발휘할 우려가 있게 되자, 내세운 사회정책이 바로 Melting Pot이었다.

유럽계는 유색인종이든 소수민족에 속하는 많은 이민들은 다수를 차지하는 영국계 백인과 함께 잘 녹아서 같은 교육도 받고, 사회진출에 동등한 기회도 가져 보려고 했지만 사실상 흑인과 유색인종과 함께 녹아서 소수민족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려는 영국계 백인들이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았다.

편견의 본질(Nature of Prejudice)을 저술한 Gordon AllPort같은 사람의 말을 빌려보면 소수민족은 동화를 하려고 해도 욕을 먹고, 동화를 안해도 욕을먹는다고 한다. 즉 흑인들이 공부를 열심히하여 대학에 들어가려면 백인들이 말하길 "자식들 건방지게 공부하여 우리하고 맞먹으려고 한다"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하면 "자식들 건방지게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뒤에서 욕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은 Melting Pot을 일컬어 백색의 Melting Pot이라고 한다. 그래서 누구나가 피부나 문화배경에 상관없이 이 백색의 Melting Pot 과정을 통해 새로운 미국시민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동화가 되고 싶어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자, 자기의 문화적 뿌리를 찾아야 하겠다는 운동이 미국에서 전개되기 시작했고, 그 운동의 극치는 1960년대에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것이다. (계속)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6>

金聖鍾 작

冷血 ⑩

破滅 두려워 놈의 지시에 따를수밖에…

『병원에 간 김에 당신도 진찰을 한번 해봐.』

『알았어요. 여보.』

『응?』

『미안해요. 일요일에도 외출하고…』

『미안하긴… 빨리 다녀와.』

의심 하나 하지 않는 남편에게 그녀는 너무 죄스러웠다.

배가 고팠지만 아침 식사도 입에 대지 않았다. 코피 한 잔 든 채 밖으로 나왔다. 이번 일요일은 마침 자가용 운전사가 노는 날이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가는도중 내내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할지 묵살해야 할지 하는 문제로 괴로와 했으나 결정을내리지못했다.

W호텔 앞에서 차를 버리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목시계를 보았다. 12시25분 전이었다. 주위를 경계하면서 회전식 도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은 남아있었다. 프론트쪽을 힐끗 쳐다본 다음 코피숍으로 가서 구석진 자리에 가만히 앉았다.

웨이터가 코피를 가져왔다. 스푼으로 코피를 휘휘 젓다말고 터을 괴고 멍거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할까. 그냥 묵살해버릴까. 놈은 한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 피가 마를 때까지 빨아먹을 것이다. 거절하려면 처음부터 거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걷잡을수 없이 말려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거절할 경우 그 결과는어떻게 될까. 놈은 틀림없이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순간부터 나는 파멸이다. 남편은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한다해도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단 말인가. 경찰에 알릴까. 그것도 위험하다. 피해자 입장에서 불려다니다보면 조만간에 남편이 알게 될 것이다. 경찰이 비밀을 유지해준다 해도 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경찰에 구속된다해도 놈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편에게 고자질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무 것도 할수가 없다. 놈의 뜻을 거역하는 짓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파멸을 막으려면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수밖에 없다. 그의 말 한마디는 이제 제왕의 명령이나 다름없다.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자식의 온갖인 구좌번호까지 알려주면서 거기에다 거액을 입금시키라고 했을까. 치밀하고 무서운 놈이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에게 접근한 것이다.

그런데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 가만있자. 그렇구나. 그녀는 핸드백을 열어 수첩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뒤적이다가 신경질적으로 그것을 백속에 도로 집어넣고 거칠게 일어섰다.

프론트로 걸어가면서 흘끔 주위를 둘러보았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불안했다.

『2515호실…체크해주세요.』

처음부터 말이 퉁명스럽게 나왔다. 입술을 새빨갛게 칠한 여직원이 힐끗 그녀를 처다보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문자는 조금 기다려보다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2515호실 체크해달라고요!』

『내 말 안들려요?!』

여직원은 일손을 놓고 그녀를 응시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뭐라고? 아니, 손님이 체크하겠다고 하는데 왜 들은체 만체하는 거야? 교육을 그 따위로 받았어?』

『여보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어디다가 대고 반말이에요. 반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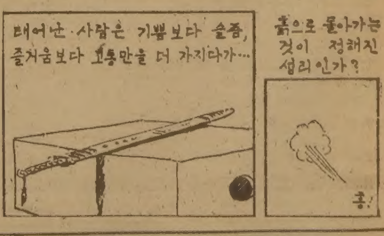
『그래 반말좀 했다. 어쩔테야?! 어쩔테야? 어쩔테야? 호텔에서 일하니까 세상에 보이는게 없니?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것이!』

朴 男 그림

◇텍사스 휴스턴에서 6일 열린 세계 키다리 미인대회에서 미스 휴스턴인 수잔 케네디양이 키다리 미인 으로 뽑혔다. 이 대회는 키 5' 10" 이상인 여성들이 참가할 수 있는 데 케네디양의 키도 5' 10" 라고.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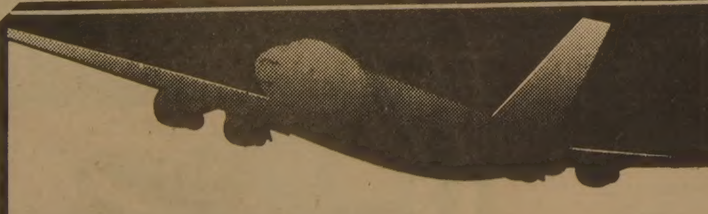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당뇨병으로 끝없이 고생하고 계십니까?
消渴白
* 이약·저약으로 아무 효과 없어 무서운 합병증까지 걱정하면서 고심하고 계십니까?
* 당뇨병도 치료될 수 있읍니다.
* 희망을 드립니다.
* 연락하십시오.
한약부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IATA
8.15경축 모국방문단 모집
출발및 귀환 자유 (8.15 경축식 참석및 관광)
등록마감: 7월 15일까지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 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 개방.
단: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공무원手當 두子女로 제한

가족·學資보조등 내년부터 실시檢討

정부는 人口억제 정책의일환으로 현재子女數에 관계없이 지급해오고있는 공무원자녀學資보조 手當을 2명의자녀에 국한시켜 지급하고 가족수당도 2人이내의 子女에 대해서만 지급할것을 검토하고있다。

총무처가 보사부등 관계部處와의 협의를거쳐 마련, 최근 차관회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手當規程개정案에 의하면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강력한 人口억제방침에 따른것으로 현행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은 아들딸 구별없이 둘만낳도록 계몽해온인구억제책과 모순돼 개선할필요가 높은것으로 지적돼 왔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같은 공무원 수당규정개정안은 내년1월부터 실시하도록 예정돼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은『일률적인 자녀수 제한은 사실상의 減俸과 같은 결과를 낳을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現業官署에서 근무하고있는 철도, 체신공무원 勞組등 공무원勞組협의회는 정부의 子女학비 보조수당등에 대한 이같은 제한 움직임에 반대의견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무원수당규정개정안을 다시 손질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고있는 학비보조 수당이나 4人이내 가족에게 지급하고있는 가족수당을 현재 지급받고있는 공무원에겐 그대로 지급하고 시행이후부터는 자녀수를 2人이내로 제한하는 방안과 일률적으로 2인이내 자녀에게만 학비보조와 가족수당을 지급한는대신 制限數를 넘는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는 별도 혜외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족수당은 부양가족(부모、배우자、자녀) 4人이내에 한해 1인당 매달5천원씩,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分期별로 1級地(대도시)의경우 중학생4만4천원, 고교생 7만3천원씩, 2·3級地는중학생2만8천원, 고교생5만원씩 지급하고있다。

不實기업 과감히 整理

특정産業에 특혜줄여

금융·稅制균등화 競爭유도

金부총리·姜재무、경제4단체장 간담회

정부는 7·3조치와 6·28조치를 계기로 분명치않았던 富의 所在를 명백히밝혀 각종부조리와 地下經濟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또 수출이나 중화학등 특정산업과 일부부실기업등 특정기업에 주어지던 稅制, 金融상의 각종특혜를 없애버려 경제가시장법칙과 경쟁원리에 의거해서 민간주도로운용돼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富의 隔差를 줄히는데도 역점을 두기로했다。

金駿成 부총리는 9일『지금까지 富의 所在가 분명치 않았다』고 전제,『앞으로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富의 所在를 밝히겠다』고 강조하면서『이렇게 하는것이 제5공화국이 추구하고 있는정의사회구현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이날상오 경제4단체가 주최한 부총리와재무장관초청 간담회에서『과거 인플레속의 고도성장과정에 오는 과정에서 부의격차가벌어진것은 사실』이라면서『정부는 부의분포가 가능한한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의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7·3조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안을 밝힌데불과한것이므로 앞으로 立法단계에서 각계의견을 반영, 합리적으로 보완되도록하겠다』고 말하고 자본의 해외도피가 우려되고있는데 대해서는 特別法의 제정을포함해서 여러가지 제도적장치를 마련, 강력히 방지토록 하겠다고밝혔다。

金부총리는 물가와 국제수지의 안정으로 통화의 신축적운용이 가능하게됐다고 말하면서『돈을 늘리되 자금의 흐름이 막힌부문에 중점공급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부도를 낼수밖에없는 부실기업은 과감히 부도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姜慶植재무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경제의자율화 방침에 맞추어 低物價、低成長、低稅率에로의 방향전환이 불가피하며 수출산업과 중화학공업, 공개법인등 특정산업및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우대조치는 얻는것보다 부작용이더많아 이를 최대한으로 억제, 불균형을 시정해나가겠다고밝혔다。

姜장관은 70년대 후반기이후 전략산업육성시책은 그선택과정과 정부의 간섭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고지적、稅制와 金利면에서 조건을 같게해놓고 선택은기업의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北傀、또 銃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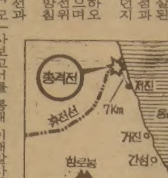
어제 休戰線초소에 10분간

북괴는 9일하오1시 10분께부터 휴전선 동쪽猪津서북방9㎞지점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국군초소를 향해 10여분간 기관총사격을 가해왔다고 이날하오 국방부가발표했다。 朴鍾楨 국방부 대변인은『국군은 자위적으로 즉각 응사했으며 우리측 피해는없었다』고 밝혔다。

북괴의 이번 총격도발은지난5일 鬱陵島동북쪽 2백20마일 공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제5成進號에 대해 총격을가한지 4일만에 저지른 도발이며 또 도발지점은 지난5월15일 국군에 의해 사살된 북괴무장간첩의 침투지점과 6월7일 총격도발을 했던지점이 일치하는 곳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하오 조사팀을 현장에 보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군사정전위를 통해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다。

북괴는 올들어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각각2건씩 모두 4건의 휴전선총격도발을 감행했다。



大邱 35度7分

어제

【大邱】 9일 大邱지방과 경북安東지방의 기온이 35도7분까지 치솟아 올들어최고를 기록했다。安東지방은 지난 71년측후소가 생긴이래 7월초순날씨로는 가장높은 기온이었다。

바람 한점없이 기온이 올라가자 이날 대구와 안동시내의 아스팔트가 녹아내렸으며 거리에는 행인들의 발길이 뜸했다。

또한 선풍기등 가전제품이 불티나듯 팔렸고 선풍기는 평소보다 3배나 팔려 일부 가전제품상에서는 물건이 동이나기도 했으며 얼음공장들도 수요의 급증으로 배달에 애를 먹기도 했다。【聯】

高德개발 環境무시 民韓、즉각中止주장

民韓黨은 9일 환경보전문제로 물의를빚고있는 서울高德지구 宅地개발사업이 환경보전법에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하지않은채 變則으로 실시되고있다고 지적、宅地개발사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民韓黨 高德지구조사단(단장 李閔基의원)은 이날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개발사업이▲漢江汚染▲도시계획▲綠地공원▲교통문제등을 분석평가한뒤 실시돼야 할뿐더러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단은 또 개발계획과 환경보전의 調和를위해 환경보전법에 명시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비강화、행정협조체제를 강화하고、이개발사업도 환경영향평가후 그결과에따라 시행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서울시의 住宅難을 해소하기위해서는 기존녹지를 개발하는정책을 脫皮하고 시외곽지역 택지를개발、流入人口방지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對테러 特殊戰경찰 月최저 2萬원手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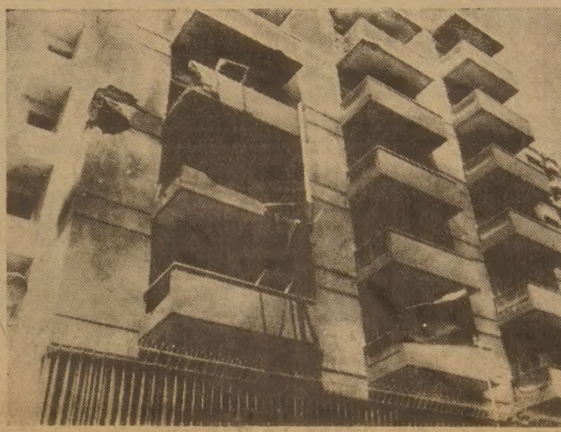
국무회의는 9일 경찰공무원 手當규정을고쳐 對테러특수전팀인 空輸機動경찰대의 신설에 따라 소속경찰관에게 월2만원내지 4만5천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순경에겐 2만원 경감4만원、경정에게는 4만5천원씩 각각지급될 예정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鄭載巳군 無罪선고

1審서



◇포탄세례 받은 蘇대사관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게릴라간의 포격전 와중에서 포탄에 맞아 파괴된 베이루트주재 소련대사관의 모습。【베이루트 8日 UPI電送=聯合】

經濟대책등 論議

黨政조정회의

정부와 民正黨은 9일저녁 三淸洞총리공관에서 金相浹 국무총리서리의 초청으로 黨政정책調整회의를 열고「6·28」경제활성화대책및「7·3」금융관계조치、금년도下半期의 재정운용계획、내년도 예산편성방안등 國政懸案에 관해 협의했다。

金총리서리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측은 景氣침체로예상되는 6천억~8천억원의 稅收결함과 관련、내년도 예산의 緊縮편성방침과 금년도 하반기예산의 節減집행방침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民正黨은 최근의 잇단 경제조치에서 파생될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빠른시일내에 補完策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民正黨은 또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각종法案들을 조속한시일내에 黨과 국회에 제출、충분한 사전심의를 할 수있도록해줄것을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金총리서리、金埈成부총리、盧泰愚내무、姜慶植재무、吳世應정무제1장관과 청와대의 許和平정무1수석、金在益경제수석비서관、民正黨측에서 李載瀅대표위원、王相殷사무총장、陳懿鍾정책위의장、李鍾贊총무、南在斗총재비서실장등이 각각 참석했다。

低金利 인플레우려

商議、借款도입 곤란등 지적

大韓商議는 9일 6·28및 7·3조치이후 업계의 집약된 의견제시、국제수지악화、투기및 인플레발생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보완대책을 촉구했다。

商議는 이들 조치에 대한 부작용으로▲저수준의 국내금리로 차관이나 외자도입이 줄고 高利의 기존 외자도입 잔액을 축소시키기위한 外貨지급의 증대때문에 국제수지가 악화될 것이며▲투기와 인플레의 발생우려▲受信금리인하와 실명거래、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등으로 저축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수요의 측면、즉 家計에대한 지원조치가없어 수요부진과 소득분배구조가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많고▲私債양성화에 따라 기업자금조달에 혼란이 일어날것이라고 주장했다。

商議는 부작용과 여러가지 우려를 불식하기위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정부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신중한 새해경제운용계획과▲소비자보호강화▲各種생필품가격안정등을 포함、각종 일관성있는 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치의강구▲사채양성화의 신중한추진▲저축증대대책등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건의했다。

印、이領事館 폐쇄 이틀내 出國명령

간디 곧포괄적發表

【뉴델리9日AP聯合=特約】 인도정부는 봄베이주재 이스라엘 영사관의 폐쇄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며 간디수상이 9일하오 양원 합동회의에서 이에대한 포괄적인 발표를할 것이라고 라오외상이 밝혔다。

인도정부는 8일 요셉·핫산 이스라엘 영사를 기피인물로 선언하고 48시간내에인도를 떠나라고 결정했다。

라오외상은 이결정이 외교관례에 벗어난 핫산영사의몇가지 행동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軍 이틀째砲擊 레바논 蘇대사관

【모스크바8日AP聯合】 서베이루트에있는 소련대사관과 통상대표부가 7일밤 연이틀째 이스라엘군의 포격을받아 한명이 부상했다고 소련의관영타스통신이 8일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통상대표부건물에 5발의 포탄이 떨어져 불길이 일며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으나 대사관건물의 피해상황과 부상자1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않았다。

PLO 撤收키로

【베이루트·워싱턴8日UPI=聯合】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레바논위기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PLO의 정치적인 레바논잔류요구를 철회하는한편 PLO게릴라들이 베이루트철수지원을 위한 美軍의 레바논파병에도 동의한것으로 8일 보도되었다。

美 레바논派兵땐 蘇도對應조치

【모스크바8日AP·UPI=聯合】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 브레즈네프는 8일 레이건 대통령이 레바논에 미군을 파병해서는안되며 만약 파병이 실현되는 경우 소련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것이라고 강력히경고했다。

브레즈네프는 이날 관영타스통신에 의해 공개된 레이건 대통령에게보낸 친서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침공행위』를 종식시키기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하고 미국이 레바논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소련은『새로운 상황』에 따라 그에 알맞은 정책을 채택해야만 할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즈네프는미군이레바논에 파견될경우 소련이어떤대응조치를 취할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레바논사태가확대될것임을 분명히시사했다。

모스크바주재 미대사관대변인은 브레즈네프의 이같은 친서가『외교경로』를 통해 미국측에 전달됐다고 밝히고 이같은 친서의 내용을공개하는것은 관례에 어긋나는일이라며 타스통신의 보도에불쾌감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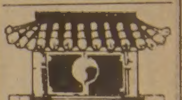
社会漫評

地平線

『인류의 장래는 핵무기보다도 무서운 기상변화에 달려있다』고 지난1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가 말했었다。 적극을 열음으로 덮어버리도록 기후조작을 하는일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일종의『빙하전술』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세계는 최근 환상적인 기상작전이아니라 부쩍 늘어나고있는「기상이변」을 둘러싸고 입씨름을 벌이고있다는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미국 미시건대학교의 로머스·도나휴교수는 이대로 간다면 지구위의 바다가 송두리째 말라버릴 것이라고 소름끼치는 경고를 하고있다。 그는 금성에도 한때 깊이 2·4㎞의 바다가 있었다고 말한다。 금성의 바다는 소위「온실효과」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증발했고、증발한 물이 거꾸로 온실효과를 높여 금성을 가마솥처럼 만들었다는 것이다。▼도나휴교수의 이론은 지구가 더워지고있다는 쪽에 속한다。 지난3월 미국하원의 증언대에 나온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대학교의 멜빈·캘빈교수도 지구가 더워져、『2세대안에 파국이 올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구가 더워지는것은 공기중의 탄산가스·먼지등 공해가 일으키는 온실효과때문이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해는 또한 오늘날 지구위 기상이변의 원흉으로 알려져있다。▼기상이변중에서도 살인적인 가뭄이 수년째 남부아프리카를 휩쓸고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축이 죽고 농사를 망쳐 10억달러(7천4백억원)의 손실을 봐, 내년에는 전면적인 경제불황이 예상되고있다。 모잠비크에서는 50만명이 굶어죽을 판이고、나미비아의 거리에는 죽어넘어진 가축의 시체들이 즐비하다고 한다。 보츠와나에서도 가축을 죽여 없애야될 판이다。▼세계각국의 소위「기상변경」연구는 대개 비를 만들어 내는데 집중돼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하이플렉스 계획」은 8년째 계속해온 연구다。 올 가을에 나올 보고서는 여름철 뭉게구름을 비로 만들수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한다。 그 방법은 비행기로 드라이·아이스나 옥화은을 뿌리는 것이다。 超低溫의 이「씨앗」이 공기중의 습기를 맺히게 하는 방법이다。▼유라시아대륙전체에 심각한 가뭄이 엄습하고있다한다。 수년째 남아프리카를 휩쓸고있는 가뭄처럼 혹독한 천재가 되리라는 관측은 없지만「기상이변」의 소식엔 우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두는게 좋다。 기우제를 지내는것보다는 우리도비행기를 띄워 드라이·아이스를 뿌려보는 시험쯤은 생각해야될것같다。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감사 말씀

10회 런던 한인 친선골프대회를 캐나다·데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런던회원은 물론 멀리 토론토, 해밀턴, 차탐, 윈저등지서까지 참가해 주신 덕분으로 예정대로 무사히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트로피, 상품, 상금을 희사해 주신 다음분들께도 우선 지면을 빌어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천우여행사 (김현두)
◉팬아시아 무역상사 (이창복)
◉한국일보 런던지국 (강상권)
◉토론토골프협회 (김현모)
◉무나미트로피 (이기훈)
◉제일여행사 (신용목)
◉런던지구 동우회 (천용재)
◉김태수 ◉김성연 ◉천장환

런던한인골프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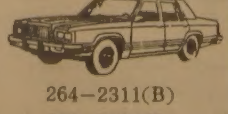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밴, 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외문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한양 중·공고
임시총회 소집

동문제위!
뒤뫼에 높고도 푸른뜻으로 한가람에 맑고도 깊은 맘으로…
어언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했고 우리들 이 이민생활은 안정기반에 들어 섰읍니다.
이제 도약의 새시대를 열기위한 협동의 광장으로 그동안 소식이 없었던 한양중·공고 동문은 한자리에 모입시다.

일 시 : 1982년7월31일(토) 밤11시
장 소 : 뉴서울식당 2층(529 Bloor St. W)
안 건 : 1. 회장및 임원선출의 건
2. 가족동반 야유회 건
3. 기타 토의 사항
※재캐나다 거주 동문은 이번 기회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김오석 534-3648
김덕기 532-1054(제일식품)
김영상 459-3363
박인순 533-3545

한양중·공고
동문회장 김오석

基督敎·回敎徒간 긴장高潮
레바논「새內戰」위험
「地域점거」싸고 감정惡化
「두 앙숙」, 대결 不可避

【베이루트·예루살렘 8日 UPI 聯合】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으로 레바논내 기독교도와 회교도사이에 새로운내전이 발발할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 위험은 남부 레바논 곳곳의 폐허속에 뿌리를 내려 독버섯처럼 자라고있다고 레바논의 외교소식통들이 8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이스라엘군이 남부레바논을 침공, 팔레스타인게릴라와 좌익회교도 지역을 차례로 함락시킨데힘입어 기독교민병대가 뒤따라 이들 피점령지역을 착실히장악해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한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게릴라세력을 축출해준데대해 은근히 고마와하던 회교도들은 팔레스타인지역을 기독교도가 차지하려는데대해 분노를 참지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일단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철수하면 7년묵은 두앙숙끼리의 불화가 곧 새로운 내전으로 다시 비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식통들은 이미 우익 팔랑헤민병대 지도자 베치르·게마옐이 휘하부대를 남쪽으로 이동시켰으며 기독교민병대 지도자인 사드·하다드는 이스라엘 점령지역을 장악하고있어 남부 레바논지역 회교도들은 양대기독교세력의 사이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한 유엔군 의무부대 지휘관은 하다드가 최소한 2백여 마을을 새로 장악했으며 게마옐은 시돈항을 포함한해안지역을 장악하고있다고 말했다.

◇코끼리타고 키우·삼판 만나러가는 시아누크 反베트남 3개 캄보디아 저항세력이 최근 결성한 聯政의 대통령 노로돔·시아누크公이 8일 그의 聯政에서 부통령직을 맡고 있는 크메르 루지 게릴라지도자 키우·삼판과 만나기위해 코끼리를 타고 크메르·루지 장악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포롬·트메이 (타이) 9日 UPI 聯合】

1百30國수락 國際海洋法
레이건、署名 거부
英·佛·日등 友邦에 이미通告

【워싱턴8日UPI AP=聯合】 레이건행정부는 세계 1백30개국이 이미 수락한 국제해양법조약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백악관이 8일 밝혔다.

백악관의 한 대변인은 미행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이번주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포스트紙는 이날 한 국무성관리의 말을 인용, 레이건행정부가 지난달 29일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 2일 국무성을 통해 영국·프랑스·서독·일본등 美우방들에 이 사실을 통고한후 그들과의 사이에 계획돼 있던 관련회의들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4월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해양법조약은 영해밖에 위치한 해저에서의 광물채굴을 제한하는동시에 가장 앞서있는 美채광기술의 판매를 요구하고있다.

이 조약이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을「너무 엄격히」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美행정부는 지난해 이 조약이 美國의 목표에 맞게 수정되지 않는한 서명하지 않겠다는입장을고수함으로써 이조약의 채택을 1년이상 지연시킨바있다.

유엔 해양법회의는 오는 12월 이 조약에 조인할 예정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加, 原子爐1基 가동중지
캔두型 熱교환기 漏出로

【터론토7日=聯合】 한국이 캐나다에 발주, 현재 건설중인 것과 유사한 캐나다의 캔두형 원자로 1기가 지난 6월말 열교환기의 누출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원자로를 관리하고 있는 온타리오 수력발전소대변인은 아마도 열교환기 튜브가 진동으로 마모되어 누출사고가 발생한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고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사능물질은 거의 누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5개월동안 모두 세번의 원자로 사고가 있었는데 지난4월에는 또다른 캔두형원자로가 송수튜브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비없는 장마前線」될듯
충분한 강우량확보엔 悲觀的
日기상청「低溫小數型」진단

【東京=聯合】 일본의 장기기상예보는 이번여름 수확에없는 올여름의 극심한 가뭄을 가리켜「저온소수형」이라고 진단한다.

일본 기상청의 장기예보담당자들은 금년은 장마전선이 충분히 발달해보지도 못한채 장마가 끝날 가능성이 크며 7월상순 후반께 국지적으로 비가 오겠지만 해갈까지는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본 기상청의 관측으로는 금년의경우 남태평양의 고기압이 약한반면 상대적으로 북쪽의 오호츠크에 고기압이 강해 장마전선의 북상을 저지하고있어 한국과 일본의 서부지역이 첫장마철을 보내게 될것 같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 장마를 몰아다주는 전선 (남서기류)이 예년보다 발달한 북쪽의 고기압세력에 밀려 6월은물론 7월에 들어와서도 남쪽에정지해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기상청은 지난 5일께부터 북쪽의 고기압이 쇠약해지는 바람에 장마전선이 겨우 북상을 시작, 일본남서부 지역에서는 5일저녁부터 6일에걸쳐 비가왔고 호우주의보가 내려진곳도있지만 갈라진 대지를 적시는 정도에 그칠뿐 금방장마철이 끝나버려 이래저래 충분한 수량확보가 비관적이라는 전망을 내리고 있다.

蘇、「가짜便紙」공세
레이건 이름등 盜用

【워싱턴8日 聯合】 소련은 선전 및 허위정보 유포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미국과 그 우방국들간의 유대관계를 교란시키려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美국무성의 한 고위관리가 8일 비난했다.

이 관리는 레이건 대통령이름이 박힌 가짜편지를 포함, 헤이그前국무장관, 그밖의 고위관리들의 이름으로 서명된 가짜편지들의 수가 늘어남에따라 미국정보전문가들이 이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10월 처음제출되기시작한「소련의 활동수단―위조, 정보공작, 정치활동등에 관한 특별보고서」라는 문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소련은 모든 나라의 관행이 되어있는방법과는대조적으로비밀공작과 사술을 국제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서신과 서류를위조한것이 소련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관리는「우리는 소련이 이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조된 편지 가운데는 지난해 11월 레이건 대통령이 스페인국왕에게『팍쇼세력과 좌익반대세력을 분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도 있다.

海外토픽

레代表 退場소동
★미스유니버스 選拔대회

【리마=UPI】 오는26일 페루수도 리마에서 개최되는 82년도미스유니버스선발대회가 세계각국미녀77명이 참가한가운데 이스라엘의 참가에 기분을 잡친 레바논대표가 돌연 대회참가를 거부하고 귀국하는가하면 한 참가자의 국적사칭사례가 적발됨으로써 개막을 앞두고 소동을 빚고있다고.

고급賣春業 번창
★폴란드 經濟難속

【바르샤바=UPI】 휘청거리는 폴란드경제속에서 유일하게 번창하고있는 것은 고급매춘업이라고 바르샤바의 베토紙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약 1백50명의 고급창녀들이 바르샤바의 4개 고급호텔과 3개 외국인 전용바를 무대로 활동, 일류레스토랑을 무대로 하고 있는데 암시장의 외국화폐로지급되는 이들의 한번 봉사료는 50~2백50달러 정도로 이는 폴란드국민의 월평균소득 1백8달러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는것.

固形癌엔 효과없어
★日研究機關 인터페론 分析

【東京=聯合】 인터페론에 대한 전국적인 임상실험을 계속중인 일본의 HLBI연구회는 17일 이같은 연구결과를 밝히고 그러나 화학요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신장암·방광암 등에는 인터페론이 상당한효과를거두고있음을알아냈다고밝혔다.

이 연구회는 특히 인터페론을 투여했던 46명의 각종 암환자중 17명가량이 어느정도 효과를 봤으나 유방암·폐암·위암등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고형의 암에는 인터페론이 전혀 듣질 않아 이 약을 특효약이라고 말하기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아리

日本의 改憲論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것이란 世上에 별로없다. 누군가가 갖다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얻지못하고 마는것이 오늘날의 풍토다. 世界의 平和도 마찬가지다. 平和는 오는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음으로써 얻어지는것이다.

日本이 再武裝하기위해 憲法改正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만약 日本이 日本자신과 국민, 그리고 世界에 적극적으로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그들의 憲法을 뜯어고치는것이라면 누구든 할말은 없다.

이제까지 日本은 자기 憲法을 곧잘〈平和憲法〉이라고 불렀다. 여기의〈平和〉란표현은 戰爭을 부인하고 무력보유를 금지하며 交戰權은인정치 않는다는 그의 憲法規定 내용과 일치하는것이다. 戰爭이나 무장을 否定하고 그런 상황에 적합하고있으면 바로 그것이 平和라고보았다.

사실 日本은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 염가로 平和를 누려왔었다. 하지만 오늘처럼 强大勢力이 한창 戰力을 증강하면서 集團安保를 다지는 판국에 戰爭을 否認한다고해서 그나라에 平和가 절로 깃들여질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할것이다.

日本도 이런식의 平和에 대하여 이젠 좀 회의를 품으며 지난날을 반省하는것 같다. 작년5월 日本의 스즈끼首相은 미국을 방문했을때「지금까지의 受動的인 자세를 바꾸어 自進해서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는 日本으로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平和의 被動的享受者로부터 能動的 創造者가 되도록 하겠다」는 선언을 한바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의〈平和〉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平和를 적극 창조하는 노선을 취하겠다는 다짐인 것이다.

再武裝論은 그간 日本안에서 자주 제기되어왔다. 또 그 再武裝이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려는 발상과 명분위에 바탕하는限 긍정적인 의의가 따라붙을것도 틀림없다.

극동에서의 소련勢의 南下, 그로부터 조성되는 緊張과 平和교란―이런문제에 대하여 安保的評價와 狀況認識을 西方側과 같이하고, 나아가서 日本軍事力에 대한 自省과 장차의 기여도를 모색해보았으면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再武裝의 필요에대한 日本의 기본인식이 이렇지 않을때 그 강대한 軍事力의 보유나 海外出動, 交戰權의 新設에는 오히려 경계를 요하는 일면이 깔리게된다. 지나간 史實에 비추어 이점 널리 유념되어야 할것이다.

큰變化 몰고오는「두 中國」
中共·臺灣「제2 上海성명說」의 안팎
"外國아닌 한개省"無關稅 (中共)
"황금시장 뺏겨"改善압력 (臺灣)

인사이드

조만간 미국과 중공이 美-中共-臺灣 관계를 재정립하기위한「제2의 上海성명」을 발표할것이라는 보도가 끈질기게 나오고 있는것과 때를같이해 중공-대만의 관계가 개선되고있는 조짐이 보이고있다.

孫運璿자유중국 행정원장은 최근 本土와의 정치·경제·문화적 차이가 좁혀짐에 따라 평화통일을 한조건은 점진적으로 성숙될수 있으며 양측화해의 장애물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좁혀질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양측의 점진적인 접근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중국문제전문가들은 孫행정원장의 이같은 발언이 곧 대만정부의 중공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 일변도에서 벗어나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비교할때 대만당국의 기본입장은 본토의 정책과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한 그들과의 협상은 고려조차 할수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국민당정부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중공과 관계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받고있다.

중공은 수년전부터 대만에 대해 끈질긴 평화공세를 계속해오고 있다. 대만인들의 본토방문, 문화·스포츠·학술교류를 비롯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새로운 國共합작까지 제의했으며 대만정부가 중공측과 평화통일원칙에 합의할 경우 대만정부의 정부형태나 경제구조, 군대조직까지도 그대로 존속시키겠다고 말한바있다.

이에대해 대만정부는 공식적으로 단호히 거부하고 있지만 그동안 경제및 학술분야등에서 상당한 접촉을 가져왔다. 특히 홍콩, 일본을 경유한 3각무역관계는 80년대 3억달러, 81년에는 4억6천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대만이 홍콩에 수출한 물건의 90%가량이 중공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대만제품은 특히 2년전부터 중공이 外國이 아니라 대만의 한省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세를 매기지 않고있어 더욱 경제교류는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제교류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만의 실업인들이다. 그들은 현재와같은 대치상태보다는 차라리 경제교류로부터의 위협이 덜어져 안보면에서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공은 최근 廣東省의 深圳·珠海·汕頭와 福建省의 廈門등 4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대만의 실업인들을 유치하고있다. 대만의 실업인들은 국민당정부의 대화단절 정책때문에 황금시장을 서구와 일본에게 빼앗기고 있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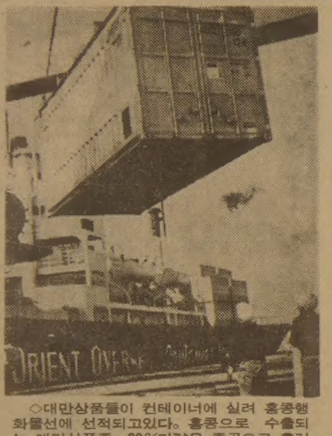
중공은 이들 특별구역을 중심으로 외국과의 합작투자및 위탁가공, 보상무역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홍콩, 마카오, 대만등지와 인접해있는 深圳경제특구에는 44층높이의 국제무역센터를 필두로 20층 안팎의 외국상사빌딩 1백여채가 건설중이다.

대만 실업인들이 이미 올들어 7백여명이 중공을 방문, 廈門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만과 중공과의 본격적인 교류확대문제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있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국민당정권의 위치문제.

중공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다른분야의 교류에까지 확대된다면 국민당정부가 현재의정책을 유지해가는데 장애가 될수 있기때문에 국민당정부로서는 선뜻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중공과 대만간의 문제는 미국의 태도에 크게 좌우될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의 입장은 가능한 양측이 스스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찾을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대만과 중공이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경우 美-中共-臺灣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朴永赫기자】



◇대만상품들이 컨테이너에 실려 홍콩행 화물선에 선적되고있다. 홍콩으로 수출되는 대만상품중 90%가량은 중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孫運璿행정원장

外國軍 판치는 레바논
명목상의 政府뿐… 軍隊도 있으나마나

國際뉴스 ABC

―레바논사태에 이스라엘과 PLO의 대결만 돋보입니다. 레바논의 정규군은 어떤 상태입니까.

▲레바논군은 2만5천명이나되지만 훈련부족에다 장비가 없어 허울뿐입니다. 더우기 내전이나 외부의 침공이 있을경우 정규군은 종파에 따라 크게는 기독교와 회교도로 분열되어 각자의 종파로 가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레바논에는 통일된 군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레바논에는 많은 외세가 주둔하고 있다는데요.

▲레바논에는 8천여명의 PLO와 2만여명의 시리아군이 있고 남부지역에는 이스라엘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유엔평화군 7천여명도 있습니다.

―레바논의 종파는 몇이나 있는데요.

▲아랍국가이면서도 기독교세력이 우세한 레바논은 종파가 매우 복잡합니다. 기독교는 약 16개 종파가 있고 회교도도 여러 종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레바논의 인구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인구는 약 3백만이며 면적은 1만4백㎢로 우리나라 경기도보다 약간 작은 나라입니다.

―레바논의 역사는.

▲레바논은 1943년 프랑스의 신탁통치에서 독립했습니다. 【外信部】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국일보광고부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0,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뉴욕 外交官들 住宅難

—아파트主人들 집빌려주기 꺼려

特派員 노트

유엔은 1백60여개국의 외교관과 그 가족들 약 3만2천명이 살고있다.

그들은 평균 3년을 근무하는동안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비롯해 1년내내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문화재나 그림, 조각을 볼수있다. 링컨센터나 카네기홀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 발레, 오페라 그리고 심퍼니오케스트라는 물론 유명한 음악가들의 연주를 만끽할수있다. 또 뉴욕 특유의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즐길수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나라의 외교관들이 뉴욕을 즐기면서 뉴욕근무를 하는지는 알수없으나 뉴욕은 외교관들에게는 잊을수없는 근무지임에 틀림없다.

뉴욕 한복판에 흐르는 이스트·리버를 끼고 우뚝 솟은 유엔본부는 그들의 「천국」이다. 많은 유엔대사들은 나름대로 각국의 일급대사들이며 거의가 다 떠날때는 영전을 한는데 대부분은 외무장관으로 발탁된다. 유엔대표부에 근무하는 실무급 외교관들도 소위 「굴러온돈」 외교관들이어서 3년근무가 끝나면 승진하거나 중책을 맡게되는 도약대가 된다.

"집세안주고 떠나기일쑤 파티소음등 이웃에피해"

외교特權…法的해결 어려워

그러나 요즘의 뉴욕은 외교관들에게 그렇게 즐겁기만 한 곳은 못되고 있다.

대낮에 시가에서 날치기를 당하는가하면 고급호텔 엘리베이터나 객실에서 강도를당하는 외교관들도 허다하다.

단지 외교관이란 신분때문에 일반범죄사건과는달리 공개되지 않고있을 뿐이다. 그중에서도 외교관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고있는것은 住居문제이다.

오는 10월부터 뉴욕의 아파트 월세는 12%에서 30%가량 오를 예정이다.

버스나 지하철 값이 곧 1달러선으로 오를 추세여서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하기위해 주거주지를 시내로 집중하는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속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뉴욕에서 소위 치외법권의 외교특권을 누리는 외교관들이다.

뉴욕아파트 주인들은 외교관에게 아파트를 빌려주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시 유엔협조위원회의 소렌슨여사에 따르면 해마다 2천5백명의 새로 부임하는외교관들이주택을마련해야된다.

외교관들에게 집을 빌려주길 꺼리는 아파트관리회사나 복덕방얘기를 들어보면 외교관들은①집세를 지불하지 않고 떠나는수가 많으며②가옥파손시에 책임추궁이 어려우며③각종 파티로 엘리베이터를 독차지하고 소음을 일으켜 다른 거주자들에게불편을 준다는것등을내세우고있다.

그러나 외교관특권 때문에 이런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해볼길이 없다는것이다.

얼마나 많은수의 외교관들이 집세를안내고 뉴욕을떠났는지 통계가없으나 1백60개국이넘는나라 외교관들이 모였으니 별별일이 다있을것이라고 짐작할수있다.

어느날 갑자기 본국에 쿠데타가일어나 현지에서 파면되거나(이란의 경우) 현지에서 주저앉아야되는 외교관들의경우도있다.

이러한 집주인측의 얘기에 대해 뉴욕시 유엔협조위원회의 앤드류·오델은『집세문제는 극히 적다. 시당국이 문제를 제기해오면 해결해줄수있다. 외교관들은 떠나지만 공관은 떠나지 않는다. 그들은 나라를 대표해 뽑힌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외교관들을 강력하게 대변했다.

유엔 의전장 알리·테이무어도『외교관은 매일 집에 손님을 청하지 않는다. 청한경우 고작 10~12명정도이고조용한 외교를 하자고 집에 초청하는 것인데 다른 거주자에게 폐를 끼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유엔건물에서 2백m 거리밖에 안되는 벨몬트란 아파트는 계속 유엔 외교관들의 입주를 거절하고 있어 일단 은밀히 조사를 받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뉴욕의 아파트주인들은 유태계가 많으며 유색인종외교관들이 백인들보다 거절을 당하는수가 많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불법이다.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의 인종차별은 아직 건재하며 날로 심해지는 경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뉴욕에 오래살수록 그런현상을 보고 느낄수있다.

주거차별을 당한 경험이있는 공관은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를통째로사서쓰고있다.

미국의 적국으로 알려진소련이나 中共은 대사관저는물론 일반직원들의 숙소도 독립건물을 교외에 마련했거나 시내 복판 공관건물에서 합숙을 하고있다.

물론 공산권나라의 경우이탈을 우려해 집단생활을 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한국외교관은 유엔대표부와 뉴욕 총영사관파견근무자를 포함 35명을 헤아리는데 그중 몇사람은 부임후 아파트를 찾아 다니다가 문전거절을 당하기도하고 계약직전에 외교관이란 신분때문에 집구경하기조차 힘들었던 경험을 가진일이 있다.

한국 외교관들은 대개 맨해턴에 살고있지 않으며 퀸스나 브롱스지역 또는 허드슨강건너 뉴욕의 「베드룸 컨트리」라고 알려진 뉴저지주에 살고 있다.

유엔대사는 유엔근처에,뉴욕총영사는 교외 스카스데일이란 곳에 관저를 갖고있다. 유엔공사도 곧 맨해턴관저를 마련하게 된다는 얘기다.

2년전에 약 2백만달러를 들여 마련한 유엔대사공관은 건물만도 지금 싯가로 3백50만달러짜리가 됐다.

부동산값은 계속 오름세여서 정부가 관저를 구입한다는 정책은 더욱 장려되어야 할것같다. 【뉴욕=金泰雄】

世界의 社会面

떠돌이멈춘 집시族 世界곳곳서 定着化

○○○○ 지금 세계에는 1천만명에 이르는 집시族이 있다. 그들의 고향은 인도 푼잡지방. 수천년전 아랍族의 침공을받아 세계여러곳으로 뿔뿔이 흩어진 집시족들은 그들이가는곳마다 검은 피부의 이방인으로 차별을받아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목민으로 떠돌아 다니던것이 어느덧 그들 특유의생활양식으로 굳어져 내려왔다. 지금도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는 크게 개선된바없다. 떠돌이에게 국적을 인정할 나라도 별로없고, 자녀를 교육시킬라야 받아주는 학교가없다. ○○○○

천막을 치려고하면 경찰이 와서 끌어내는 통에 길바다에서 잠을 잘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집시族들이 점차 한곳에서 정착해가는 경향이지만 집시문화의 본질이 떠돌이 임에는 변함이없다.

그리스북부의 살로니카마을에는 4만명의집시족이 살고있다. 이는 그리스내에 있는전 집시족의 절반에 해당된다.

이마을의 그래던·퍽슨(42)이란 사람은 「집시의 왕」으로 불려지고 있다. 영국태생의퍽슨은 집시族의 대변기구인「세계 로마니 의회」의사무총장직을11년째맡고있다.

『집시족에대한 박해의 종식』을위해 투쟁해온 퍽슨은 지난해 하나의 큰 성과를 올렸다. 유고슬라비아가 東歐圈에서는 소련다음으로 자국내 집시족 75만명에대해 국적을 허용한 것이다.

이로써 유고내의 집시족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수있는 권리도 부여되었다. 아직 길거리에서 잠을자는 집시족은 전체의 20%정도이지만 거주지이동의 자유를 집시문화의 본질로 여기고 있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곳에다 천막을 칠수있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합법적인 야영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집시들이 발붙일 곳이 없다. 고작 며칠간 묵고 나서 쫓겨나는 신세라 자녀들을정규학교에 보내지 못한다.

『취업과 자녀교육, 시민권부여』이 3가지가 집시들의 오랜 소망이다. 퍽슨을 대표로한 로마니운동은 그동안 집시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라는 유엔 결의안의 채택등 몇가지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최근 집시들은 나치의 박해에대한 보상을 西獨정부에 새로이 요구하고 나섰다.

『아우슈비츠에서만도 2만명의 집시가 죽었다』고 말한 퍽슨은『이에대한 보상을 지급해야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유태인들의 죽음은 문서로나마 남기라도 했지만 국적이 없었던 집시들은 그나마도 없이 학살됐다고 퍽슨은 말했다.

나치에 학살된 집시족은 50만명. 유태인 희생자 6백만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 서독정부가 집시족 희생자에 무관심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유고 75만명國籍허용

나치迫害 西獨엔 보상요구

서독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집시족의 개별적인 보상요구를 거부해 오고 있다.

집시들은 대개 회교도들인데 그리스집시족들의 경우, 국적을 얻기위해서는 그리스정교회로 개종하고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리스내의 집시족들은 절반정도가 떠돌이 생활을 청산,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택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소규모 정착촌들이 그리스내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정착촌이외의 곳에는 야영이 엄격히 규제,그들의 떠돌이생활을 제한하고있다.

이들에대한 차별대우는 東歐는 물론 西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西歐에선 네덜란드가 유일하게 집시들을 위한 야영지및 특수학교를 마련해 주고 있다. 【뉴욕타임즈紙】

◇미국 知性의요람 하버드大學의 졸업식. 세계각국에서 모여든 인재들이 학위를받기위해 식장에 앉아있는모습. 【外誌】

하버드大 卒業式서 테레사修女에 名博

"사랑과 平和" 갈망 反證

졸업생 절반이 反核喪章

하버드대학이 매년 봄학기가끝난후 졸업들에 갖는 졸업식은 이대학의 가장큰 유의 전통과 개성을 짙게풍기고있다.

하버드대학은 매년 졸업식이 열리는 주일의 1주간을 졸업축제주간으로 정하고 갖가지 행사를 벌이지만 축제의 절정은 역시 졸업식.

대학도서관 본관인 라이드너빌딩앞 교정인 하버드·야드에서 열리는 졸업식은 장엄과 화려함, 질서와 자유분방이 자연스럽게 조화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다.

연례행사이자 축제이다. 미국최고의 역사와 지성의 전당으로 자처하고있는 하버드는 졸업식에서도 그들 특

지난10일 열린 하버드대학의 3백31회 졸업식에는 4천7백6명의 학부및 대학원 졸업생들과 2만여명의 졸업생가족, 친지들이 참석, 하버드·야드를 꽉메웠다.

◇테레사修女

상오10시 데렉·복총장을선두로 전직총장, 재단임원, 명예박사학위수여자들의행렬이 본부석에 도착함으로써 시작된 졸업식은 한국대학의 졸업식과는 달리 총장연설은없고 기도와 축가에 이어 졸업생 3명의 강연으로 막을올렸다.

학생들의 강연이끝난뒤 복총장의 졸업생에대한 학위수여가 있었고 곧이어 명예박사학위가 수여되었다.

하버드대학은 전통적으로 명예박사학위수여자를 졸업식을 하기전에는 일체 비밀에 붙이다가 졸업식장에서 발표하는것을 관례로 하고있기 때문에 명예박사학위수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매년 졸업식의 큰 관심거리가 되어있고 그래서 명예박사학위수여는 졸업식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지고있다.

그러나 하버드대학의 금년 명예박사학위수여는 이러한 통상적인 관심을 넘어 오늘의 미국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수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2명의 명예박사학위수여자가 극작가, 테네시·윌리엄즈, 中共 山東대학총장 우·푸·헹, 前미국유엔대사 도날드·맥헨리등의 순서로 한사람씩 호명되어 부총장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때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맨마지막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테레사수녀의 이름이 불려지고 특유의 수녀복을 입은 작은 체구의 테레사수녀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2만5천여명의 졸업식 참석자들이 전원 기립, 수분동안 긴 박수를 보냈다.

이날 졸업식에서 테레사수녀에 대한 이같은 감동적인 반응은 그에대한 존경심을넘어 현재 인류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박애와 평화를 얼마나 절실히 갈망하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수있다.

이날 졸업식에 참석한 4천7백여명의 하버드 졸업생들중 반수이상이 反核의 喪章으로 왼쪽 팔에 흰 완장을 두르고 나왔었다.

때마침 하버드대학 졸업식 이틀뒤인 12일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는 군중 집회로는역사상 최고기록인 50여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反核시위가 벌어졌고 이들은 군축회의가 열리고 있는 유엔본부앞까지 평화행진을 했다.

이것은 유럽에서시작한 反核의불길이 이제 미국에까지 상륙,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다.

베트남전쟁당시인 60년대 미국反戰운동의 센터가 되었던 하버드대학.

이대학의 학생들이 反核운동에 나서기 시작하고 미국反核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확산되고있는 이때 테레사수녀에게 명예박사 학위가 수여됐다는 사실은 미국 反核운동의 앞날을 점칠수있는 한가지 징조라고 볼수있다. 【보스턴14日=崔昇楨기자】

텔렉스

化學戰의 虛實

천연의 엄폐물 정글은 베트콩에게 더할수 없이 안전한 성역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미군은 枯葉劑「에이전트·오린지」를 정글에 뿌려 우거진 숲을 제거할 수 있었다.

월남 전쟁이 끝난지 7년째, 그 때 사용한 枯葉劑의 무서운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은 전쟁의 폐허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되고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왔다.

하노이, 타이닌 그리고 胡志明시(사이공)등지의 병원에 눈이 없었거나 기형인 어린이가 수없이 수용되어 있는것이다.

기형인 태아를 발견처리해서 일정한 용기에 그대로 담아 보관하고도 있다.

베트남당국은 이런 기형아 출산이 정글에 뿌려진 고엽제 「에이전트·오린지」에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만을 세워놓고 있는데 기형아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베트남의 톰·득·탕박사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枯葉劑에 노출됐던 부모들이 기형아를 출산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고 설명한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을 목격한 미국인들은 미국 또는 다른 외국의 과학자와 공동 연구를 제의했다. 베트남의 보건 이런제의를 환영하면서 베트남의 토양과 혈액표본을 미국으로 가져가 연구해보도록 권했다.

枯葉劑의 피해는 미국에서는 1978년부터 보고되기 시작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로부터 암, 간경변, 신경질환, 피부병, 유산등의 불평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떤사람은 정부를상대로 법정에 訴를 제기해놓고있다.

代를이어 재앙을 내리는 고엽제 「에이전트·오린지」에는 결국 인체에 유독한 다욕신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은 라오스, 캄보디아의 反베트남게릴라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베트남당국은 고엽제의 후유증을 뒤늦게 공개한것은 미국의 이런 비난에 대한 응수로 알려지고있다.

화학전쟁. 이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따로 있을수없다. 양쪽 모두에 代를이어 재앙을 내릴뿐이다. 【崔相錫기자·外信部】

「야꾸자」의 天國 日本

마약·金塊등 密賣로 한몫

◇일본 최대폭력단 야마구찌 구미(山口組) 두목다오까·가즈오의 장례식이 작년10월 5백40여명의 폭동진압경찰이 삼엄한경비를 펴고있는가운데고오베(神戶)에서 치러졌다. 이 장례식에는 일본전국에서 1천여명의 각지방폭력단 보스들이 참석했다.

일본은 暴力團과 스파이의 천국으로 불려지고 있다. 인권과 평화, 번영을 구가하는 일본은 현행법이나 확실한 증거 없이는 이들 야꾸자(폭력배)나 간첩들에 손을댈수없기 때문이다.

마피아 처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있는 굵직한폭력배만도 열이넘으며 그가운데서도 야마구찌 구미(山口組)·스미요시 구미(住吉組) 교꾸또 세끼구찌 구미(極東關口組)가 3대 폭력단으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있다.

警察도 손못대 「羽山」배후에도 폭력배

美國에 상륙 私金融 인신매매로 활개

이들은 각기 1만~2만명이상의 야꾸자를 거느리고술집과 빠찡꼬등 유흥가에 기생하고 있으며 마약과 각성제를 밀매하고 金塊를 밀수출, 자금을 만들고있다.

일본 최대의 깡패조직은야마구찌 구미(山口組)로서 일본전국에 걸쳐5백59개 단체, 2만1천8백명의 조직원을갖고 있다.

이 대최폭력단의 3代 두목인 다오까가즈오(田岡一雄)와 부두목인 야마모또 겐이찌(山本健一)가 1년사이에 모두 병사한것을 계기로 경찰청은 깡패소탕작전에 나섰다. 그러나 현행범이 아닌이상 체포할수가없어 깡패소탕작전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일본 경찰청의 추계에 의하면, 깡패들의 연간 수입은 자그마치 1조4백억엔에 이르는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각성제에 의한 수입이 4천6백억엔으로 최고에 이르고 주로 한국과 홍콩, 대만, 필리핀에서 密造, 운반해온다.

일본의 국내법이 각성제의 제조에 관해서는 중벌하고있지만, 그 운반범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에처하고 있기때문에 일본의폭력단들은 이

特派員 노트

일본의 야꾸자가 미본토에서 활동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곳은 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

이곳에서 私金融과도박, 그리고 마피아와 손을잡고 인신매매와 마약 거래까지 손을 뻗치고있다.

특히 미국의 가수지망생과 무용수들이 이들 폭력배의마수에 걸려 일본으로 끌려와서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는것이다.

금년봄 할리우드의 어느엄터리관광리전을 통해 50여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진출하고있는 일본의 폭력배는 4개조로 78년부터 서서히 재력과 인력을 증대해가고있다고 일본경찰청은 분석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일본의 폭력배가 대거 상륙한 이유는 日本계 미국이주민이 70년의 5만명에서 80년엔 10만으로 갑절이 늘어난데다가 일본으로 여행하고자하는 미국인이 격증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들폭력단들은우선 합법적인 호텔건설과 밤업전선에 투자해서 신용을얻은뒤 私金融으로 돈놀이에 차츰 마약등 각성제에 손을 대기시작한다.

이밖에 金塊밀수와 총기반입에도 끼어들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34만달러 外貨流出사건의 용의자로 지명수배된바있는 하야마(羽山武智雄)도 배후엔 이런폭력단이 끼어 있을가능성이 짙다. 【東京=宋本彬特派員】

公認 세계最長壽는 1백17세

日의 이즈미 시게찌요翁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사람으로 기네스북이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이즈미·시게찌요翁이 최근 1백17번째 생일을 보냈다.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특유한 비결을 갖게 마련이다.

시게찌요翁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사탕수수밭으로 둘러싸인 그의 집 주변을 산보한다. 시게찌요翁의 집은 일본남쪽지방의 섬인 도쿠노시마에 있다. 물맑고 공기가신선한 곳.

잠자리에 들기전 그는 TV의 프로레슬링을보면서 사탕수수나무로빚은 술 2잔을 입에바르듯 마신다. 낮에는 방문객도 만난다. 주로 호기심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다.

◇이즈미·시게찌요翁

하지만 시게찌요翁보다 더 나이가 많음을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 있어 기네스북 편

美캘리포니아 리드씨 1백22세주장

찬자들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아더·리드씨는 자신이 1백22살이라고 주장했는데 미국사회보험당국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리드씨는『나는 술을 마셔본 일이 없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고 자신의 건강비결을 밝히고『그러나 나에겐 나쁜 습관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여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4번째의 새 부인을 맞아 하고 있다고 한다. 【東京=UPI聯】

구독신청 725-5566 725-6634
배달사고 724-6635 724-7397

阿洲순방외교 強化

北傀, 5個대표파견

【서울=聯】 阿洲圈을 대상으로한 北傀의 순방외교행각이 최근 빈번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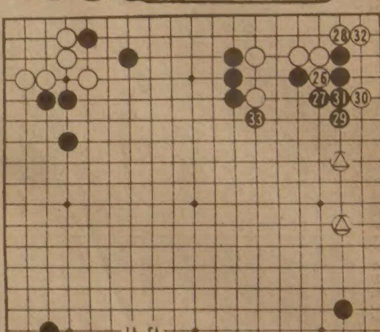
北傀는 요즈음 副주석朴成哲, 副총리鄭浚基·桂應泰등을 각각 이地域의 토고·우간다·부룬디國등에 파견, 그나싱베·에야데마 토고大統領등 방문대상국首腦들과 회담을 갖는등 순방외교를펼친데이어 지난3일에는 소위 「經濟기술대표단」「經濟학자대표단」등을 각각 알제리·케이프·베르데國에 파견, 經協확대를통한 北傀·알제리, 北傀·케이프·베르데國간 관계긴밀화에 주력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3局 第4譜 26~34 (각5시간·덤5집반)

白(挑戰者) 徐 奉 洙〈2敗〉

黑(名 人) 曺 薰 鉉〈2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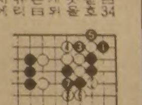


[illegible]로 젖힌수가 하도좋아서 [illegible] 이 [illegible] 名人은 1·2局동안 손안맞을 다셨다. 상대가 강수로 나온이상 이쪽도 지지않고 반격을 가해야 된다. 그러나 당장 어떻다할 수단이 없다. 가령 참고도의 黑1로 잡았을 경우 白2이하 8이면 이른바 망한꼴. 귀쪽실리는 문제가 안된다.

黑29의 호구이음은 부득이한조처. 이하 黑33까지 일단 수습하고 名人은 불만스러워한다. 그럴노릇이 이곳黑의 외세는 △표 두점으로 인해 「허세」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白28로 젖힌 수가 망외의성과를 거둔셈인데 게다

白 有望한 局勢

가 白34로 걸친곳은 의 굿을 끝치게 되어서는 白이 유리한고지여, 선착한 결과라고 보아서 무방할것 같다. 그렇다고 『白이우세한형국은못되지만 좌우간 유망한 국세임은 사실이다』하고 해설자 趙8단은 판단하고 있었다.



문제가 있다면 도전자가 제1·2국에서 유리한 초반의 형세를 끝까지 지키지못 한일인데 막판에 몰린이 바둑은 과연 어떻게 되는나이다.

名人은 白34에 대하여 용수에 부심하고 있다. 黑「가」「나」「다」등으로 협공할것인지, 아니면 좌상쪽 黑3점과 균형을 잡으며 좌변을 차지할것인지. 【一凡】

제2회 전캐나다 교민체육대회

신록이 무르익어 가는 이른 여름, 귀하의 가정의 평강과 하시는 사업위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체육대회에 이어 금년에도 8·15광복절 기념식과 제2회 전교민 체육대회를 개최코저하오니 많은 단체와 개인의 출전을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8월14일(토요일) 오전8시30분
장 소 : Centennial Park Main Stadium, Centennial Park Dr. Etobicoke, Ontario
참가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또는 한국인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마감 : 1982년 7월31일까지
구비서류 : 소정신청서 1통
접 수 처 : 1. 재캐나다 체육회 사무실 ☎ : 533-9336
454A 3rd Fl. Bloor St. West. Toronto. Ont.
2. 서울여행사 ☎ : 535-6004
631 Bloor St. West. Tor. Ont.
3. 무나미트로피 ☎ :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Scarborough. Ont.
4. Brandon Sports ☎ : 598-3732 337 Bloor St. West, Toronto. Ont.

※참고 : 주장회의를 8월7일(금요일) 본회 사무실에서 갖겠읍니다.

주최 :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후원 : 주캐나다대사관, 한인연합회, 토론토 한국일보, 몬트리얼총영사관, 실업인협회, 동우회,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한인회, 대한항공, 외환은행, 밴쿠버총영사관, 불루어번영회, 무역인협회, KOTRA, 노년회, 민중신문, 코리언·저널, 교역자협의회, 조흥은행, 한일은행

경기프로그램

시간	선수구분	경기종목	경기방법	경기구분	선수
11:00	유치원생	과자따먹기	25미터 달려가서 과자 따먹기	개인	무제한
	중학생	100미터경주		단체	4인조
11:30	국교생	공바구니 넣기	2분간 바구니에 공 던져넣기	단체	10인조
	고교생	100미터경주		단체	4인조
12:00	대학생	100미터경주		단체	4인조
	일반(부인)	공굴리기	공을 굴려 25미터 지점을 돌아오는리레이	단체	10인조
12:30	노년	통치기	25미터 지점의 통을치고 오는 리레이식	단체	10인조
13:00	일반	단체축구결승전	단체대항으로써 8월7일 예선전을 거침	단체	
13:30	유치원생	바구니 터트리기	장대 위의 바구니 터트리기	단체	10인조
14:00	국교생	200미터리레이	한학생이 50미터씩 뜀	단체	4인조
	노년	바늘귀 끼기	25 미터 달려가서 바늘귀 끼고오는 리레이	단체	10인조
14:30	중학생	400미터 리레이	한 학생이 100미터씩 뜀	단체	4인조
	노년	공나르기	25미터 지점을 돌아오는 리레이식 공나르기	단체	10인조
15:00	고교생	200미터 경주		개인	무제한
	일반	줄다리기		단체	20인조
15:30	대학생	1,500미터 경주		개인	무제한
	일반	씨름		개인	무제한
16:30	유치원생	세발자전거리레이	한학생 100미터 리레이	단체	4인조
	중학생	장애물경주	200미터 경주	단체	4인조
17:00	고교생	기마전	4명 한조로 3개조까지 출전할 수 있음.	단체	10인조
17:30	일반	축구결승전	세전파전 선발 결승전		무제한
18:30	일반	마라톤	10키로 마라톤	개인	무제한
19:30			복권추첨		
20:30			폐회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人權우선」이냐 「實物수사」냐

鄭載巴군 재판계기 司法府의 「證據엄격성」 요구에 各界의견

"有罪인정할 직접證據없다"

女大生 被殺사건 鄭피고인 無罪理由 밝혀

서울地法 東部支院 합의부

상경여대생朴尙恩양(21·부산산업대)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鄭載巴피고인(21·I대학행정과3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東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梁基俊·부장판사·주심姜熺夫판사·배석李鎬元판사)는 13일 상오10시 鄭피고인에 대한 살인및시체은닉죄 선고공판에서『鄭피고인이 검찰에서한 자백의임의성은 인정되나 여러가지 진술을검토해보면 신빙성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며 신빙성이있음을 반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鄭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같은용의자였던 J군에대한 무혐의 석방, 尹景花노파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에대한 연달은 무죄판결에 이어나온 것으로 우리나라 각급재판부가 한국사회의 사법적현실」에 관계없이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한 경향을 다시한번 부각시킨것으로 풀이할수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 『재판에 자신있다』고 장담했던 경우여서 검찰이나 경찰등 일선수사기관의 충격이 어느사건때보다도 클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검찰에서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는 볼수없으나▲범행동기,살해장소, 범행경위, 방법등에 대한진술이 일관성이없어 피고인자신이 경험한 사실로보기에는 믿기 어렵고▲검찰이 제시한 녹음테이프에 검증조서및 실황조서의 기재사항역시 이를 믿기어렵우며▲목격자3명이 피고인의 차량을보았다는등의 진술도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사실을인정할 직접증거가 되지못한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피해자의 혈액형이 O형이며 T셔츠와 청바지의 혈흔도 모두 O형이었고 사건당시 시트커버에서 O형의 혈흔이 채취돼 유사한 혈흔이라고 보이나 동일인의 혈액이라고 증명할수 없어 피고인이 범행을했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朴양의 귀밑에 난 치흔에 대해서도『어떻게 발생하였는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수 없는 난점이 있다』고 밝혔다.

거짓말탐지기 시험결과에 대해 재판부는『▲검사의 정확도 ▲신뢰성 ▲타당성에 문제점이 많다』면서『유죄인정의 직접자료로 사용할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조사받을때 숙모집에 간 사실을 숨긴점▲피고인의 숙모가 아파트경비원들에게 피고인이 사전당일 아파트에 들렀는지 여부에대해 경찰이 물으면 잘대답해달라며 사례하겠다고 한점▲피고인이 부모들과 면회시 피고인이 진범임을 나타내는듯한 진술을 한점등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는 피고인이 이사건범행에 관련이 있지않은가하는 의문을 일으킬만한 사유는 될지몰라도 피고인이 이사건범행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정확하게 상오10시 개정됐다.

방청석에는 1백20여명의 방청객들이 빽빽히 자리잡았고 재판석 오른쪽에는 李鍾旺검사가, 왼쪽에는 변호사 3명이 자리했다.

이날 鄭피고인은 흰색옥양목 저고리에 회색바지를입고 파란 운동화를 신고 입정했다.

梁부장판사는 4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낭독, 목소리로 검찰의 공소장 요지부터 읽어내려갔는데 공소요지부분이 낭독될때 鄭피고인은 가끔 몸을 앞뒤로 흔들며 꿋꿋이서 있었고 변호인과 李鍾旺검사는 눈을 지그시감고 경청하기도 했다.

鄭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조짐이 보이기시작한 것은 재판장이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결문을 읽을 때. 이때부터 변호인들은 무죄의 감을 잡은듯했고 조용히 자리를지키던 방청객들도 술렁대기 시작했다.

"누명벗겨져 기쁘다" 鄭載巴군

『피고인은 무죄!』 상오11시2분, 재판장 梁基俊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鄭피고인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안경을 고쳐 쓴뒤 아버지 鄭씨가『載巴야』하고 부르자 뒤를돌아보며 탄성을 질렀다. 곧이어 2명의 정리에 이끌려 법정밖으로나간 鄭피고인은『엉터리 수사로는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면서『누명이 벗겨져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현장을 지켜보던 변호인과 鄭피고인 부모등은 한덩어리가 돼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사건을 수사해왔던 李검사는 벌떡일어나 자리를 떴다.

鄭피고인의 아버지 鄭辰憲(50)씨는『처음부터 載巴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검찰이 너무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無罪 선고」 뒤의 微笑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鄭載巴피고인。『억울한 누명이 벗겨져 기쁘다』고 말했다.

◇무죄판결이 난뒤 鄭군의 부모를 찾아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변호인들(右로부터 卞申圭, 羅正郁변호사, 李乙淳, 鄭辰憲씨부부, 尹泰邦변호사)。

◇검찰·변호인측주장과 재판부판결의 차이

쟁점	검찰	변호인	재판부
자백의 임의성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성있는 자백	잠을 재우지않은 상태에서 집요한 추궁과 회유, 허위자백	임의성은 인정
자백의 신빙성	자유로운 진술에 의한 구체적 논리적인 자백	작성때마다 어긋나는 비논리적인 자백	논리성, 일관성 결여 신빙성없음
범행 동기	딴남자와 가까와진 朴양을 포옹하려다 순간적 범행	성격이 온순하고 대인관계 원만해 범행할수 없음	범행동기로는 미흡함
범행 방법	스스로의 진술에 의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임	진술때마다 범행방법 틀려	일관성, 신빙성 없음
치흔	피고인과 만나기 이전에 생겨 이사건과무관	朴양이 오빠집을 다간뒤 생긴것으로 피고인의 치흔과 불일치	오빠가 치흔 발견못했고 피고인의 치열이 아님
금반지 샌들 돈지갑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샌들발견, 돈지갑크기, 액수밝혀짐	돈지갑과 반지를 전철역 쓰레기통에 버렸다는진술 신빙성 없음	샌들 버린장소, 지갑크기, 진술때마다 달라
승용차시트 커버의혈흔	朴양의 혈액형과 동일 범행의 직접증거	혈흔 인정하나 피고인 친척, 환자가 기침할때 섞여나온 것임	범행의 직접증거로 불충분
거짓말 탐지결과	허위진술로 판단됨	검사방법에 정확성이 없다	정확도, 신뢰성, 타당성 결여

"별 所感없다" 梁基俊재판장

재판장 梁基俊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뒤『이번 사건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건이란 생각을 갖지않았다』면서『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여기고 기록을 검토, 재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梁부장판사는 소감을 묻자 『별다른 소감이 없다』고말 했다.

"전혀 豫想밖" 金錫輝검찰총장

金錫輝검찰총장은『전혀예상밖의일이다.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이는 있을수있다』고 말하고『상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에 인색하면 사회질서유지가 여려워지고 고문을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金총장은『소신있는 판단을 내린 법원을 비난할 생각은 없으며 이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싸워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이날상오 李彰雨검사장주재로 金基眼형사3부장 姜元一동부지청장 趙炳吉검사 李鍾旺검사등이 모여 대책회의를가졌다.

"당연한 歸結" 鄭군 변호인들

변호를맡은 卞申圭(43)、羅正郁(42)、尹泰邦씨(41)등 3변호사는『당연한귀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卞변호사는『재판부가 심리를 철저히하고 올바른판결을 내린데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공판초기 수사기록을 제대로못봐 사건을푸는데 힘들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1백68일동안 鄭군과 45차례나 면회했고증인만도 43명을 만났다고 전했다.

"保釋신청 내겠다"

鄭피고인의 변호인측은 鄭피고인에대한 보석신청을 곧 내겠다고 밝혔다.

鄭군집 잔치분위기

서울江南區驛三洞633의5 鄭載巴군집에는 이날담담 변호사3명과 가족·친지들이 몰려 잔치분위기였다.

이들은 맥주를들며 그동안의 수고를 서로 위로했다.

"공범李양은 방조범"

李潤相군사건 抗訴審서 刑量줄여

朱永炯엔 死刑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永振부장판사)는 9일 李潤相군 유괴살해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주범 朱永炯피고인(29·전京西中교사)에게 원심대로 미성년자약취유인및 살해, 시체유기, 자살교사 미수죄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은 공범李모양(18·Y여고2년)에게는 원심을깨고 징역 단기3년, 장기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潤相군을 고의로 죽인것이아니라거나 공범 李양에게 자살을 교사하지 않았다는 朱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밝히고『그러나 李피고인은 潤相군의 유인및 감금에는 가담하지않고 그뒤 朱피고인의 요구에따라 협박전화 금품요구를 도와준데 불과 하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며 방조범으로보아 형량을낮춘다』고 판시했다.

"당연한判決 바람직한 경향"

"理想論… 범죄搜査위축우려"

反應엇갈려

鄭載巴군에 대한 무죄판결은「증거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우리법원의 요즘경향을 재삼 강조한셈이돼 미묘하고 복잡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힘으로 수사의 매듭을 푸는게 관행처럼 되다시피한 수사현실에서 인권보호측면으로 볼때『당연한 판결이며 바람직한 경향이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경제력등 여건、수사요원의 자세와 자질、영악한게 미덕으로 꼽히는 피의자들의 심리구조가 뿌리깊은 사회에서「이상론」만을 요구하는것은「실물수사」를 잘못하면 위축시켜 버린다는 반론도 나온다。또「명분」과「현실」이 조화 되게끔 충분한시간을 두고 계도돼가야할 문제를 서두른다고 해결될일이 아니라면서 현저한 고문과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는한 자백의 임의성과 상황증거 문제를 조금은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절충론도 없지 않다。여하튼 朴尙恩양사건은우리나라수사의한시대를 정리하는 계기가 돼가고 있는것은 틀림없다.

최근 사법부는「자백의 한계성과 증거제일주의」에 대해 새로운 흐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부여돼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검찰송치 후에도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계속됐다면 검사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을 인정할수없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12월에는『검사작성의 조서라도 경찰관이 입회하는등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유죄증거로 삼을수 없다』고 못박기도했다。

이번사건에서도 재판부는『이러한 판결이 새삼스런변화가아니며 현사소송법의 원리에따라 판결을 했을뿐』이라고 담담한 반응을보인다。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사건이 증거에따라 판결됐으며지금도 무죄보다는 유죄판결이 더많이나오지만 단지 최근일련의 센세이셔널한 사건이무죄로 판결돼 크게 부각됐을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로인정됐던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있다는것이 배척됐다는점은 예사로운 변화가아니라고 지적하는 사람이많다。

이번 朴양사건에서「자백의임의성」을자신하고 나름대로 결정적인 증거까지확보해 유죄판결에 아무런의문을 갖고있지않던 검찰은 물론이고 일선경찰의 반응은 무척 충격적인것이다。

서울지검의 검사들은 범인이 자백을 할때는 가장 순수한 심경에서 하는것이고 검사가 이를 진실로 느낄때 증거와 알리바이를보완해서 법인으로 기소하는것인데 이처럼 직접적인 증거만을 요구하는 증거제일주의로 흐른다면 한국적인 현실을 전혀 무시한 이상론이라고 반발하는 발언을 서슴지않았다。

증거를 조작해서 범인을만들었다면 검사의 양식은 물론 사회적 신뢰나 권위마저 송두리째 부정하자는것이아니냐고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있다。

또 대부분의 사건수사를맡고있는 경찰의고위간부는「일선수사관행을 깨뜨린다면 수사에 큰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수사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그것은 결국 법집행의공동(空洞)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면서범인만 인권이있고 피해자는 보상받을 인권이없는것이냐고 항변하기도한다。

한수사관은 또 앞으로 범인들이 증거제일주의를 악용해서 지능적인범죄가 늘어나게될때 범인을 알고도 잡지못하는 사태는 어떻게 대처할것이냐고 걱정하면서 우리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인력과 장비등 과학수사에 맞추어 수사체계와 증거수집방법등에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일부법조인들은『82년도라는 시점에서 볼때 증거의 엄격성이 등장한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그러나 대국적으로 볼때 실물수사라고 할「수사현실」을 감안, 케이스별로 상황증거도 선별해 주는 사법적배려가 정책적으로 검토될수도 있어야한다』고 신중한 평을 하고 있다。

母情

鄭載巴군의 어머니 李乙淳씨

『진실이란 언젠가는 밝혀지는법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제아들의 무죄를 믿어왔을뿐이며、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저의심정을 헤아릴수 있을거예요』

핼쑥한 얼굴에 이제서야 미소를 되찾은 載巴군의 어머니 李乙淳씨(44·사진)는 아들이 철창속에 갇혀있던 6개월간의 악몽에서 조금은 깨어난듯 말문을 연다。

『저의 지주는 차라리 모정보다는 아들의 무죄에대한 꿋꿋한 믿음이었읍니다。내가 쓰러지면 내아들의 무죄는 누가 밝혀주겠읍니까。난 살점을 깎아내는 아픔이었지만 독한 마음을 수없이 다져왔읍니다。한밤에 무서운 꿈에서 깨어나 아들이 미친듯이 그리울 때면 아들의 방에 올라갔죠。아들의 몸은 차가운 철창 속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아들을 그리는 이어미의 따스한 가슴속을 찾아주었읍니다。하루도 거르지 않고 면회를 갔죠。아들을 볼때 만은 마음이 놓였지만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발길은 어쩔수없었읍니다』

6개월을 마치 6년처럼 인고와 믿음과 모성애로 살아온 그녀가 제일가슴아팠던 적은 검찰측이『어머니가 아들의 범행사실을 알고있지 않느냐』며『아들의 자백내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겠다』고 한여인의 모성애를 이용할 때였다고。

"忍苦속 6개월… 6년같았던 時間"

처음에 아들이구속되었을때는 금방 풀려 나올 것으로 믿었다는 그녀는 시간이 지나며 아들이 범인인것처럼 보도가 될때는 너무 당황했다고 한다。「그아픔이 6개월을 끌어오며 남은것 이라곤 앙상해진 몸에 예전의 옷이 맞는 것이 없지만 이제 마음만은 풍성해졌다」고 한다。

아들은 평소에 계집애처럼 인정이 많고 마음이 약해 언젠가 春川에 가족끼리 놀러갔을때 채익지 않은수박을 땄다가 도로 주인에게돌려준 자기에게 돌아오면서 계속 핀잔을 주며 마음아파했던적도 있다고한다。

그녀는 아들이 구속된후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며 신앙의힘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이끌었다고 고백한다。

『친척과 친지들 그리고 동네사람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소신껏일해준 재판관에게 경의를표합니다。내아들은 무죄입니다。그리고 이진실은 뒤엎어질수 없을것입니다』아들이 장한일을 했든 또는 나쁜짓을했든「어머니의 정」은 깊은것임을 그녀에게서 강하게는꼈다。

【韓基奉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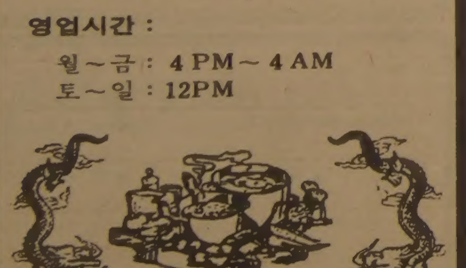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COSKA PICNIC」

사무실 의자가 딱딱하게만 느껴질때입니다. 하루가 무척이나 지루하고요. 집에 있어봐도 TV 만 보게되고 뭐 신통한 것이 없읍니다.

나오세요.
천태만상의 이유가 있을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나오세요.
COSKA PICNIC에!

캐나다 한인 컴퓨터협회에서는 올해도 아래와 같이 함께 나가 하루를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예정입니다.

자동차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요.

때 : 1982년 7월24일 오전11시
장소 : G. ROSS LORD PARK
Dufferin을 타고 North로 오시다가 Finch를 지나서 첫번째 Signal에서 오른쪽으로 Turn하시면 Parking장이 있음.
연락처 : 968-7122
주관 : 캐나다 한인 컴퓨터협회
(COSKA)

새皇帝 伊로시 또 2골, 波완파 2-0

西獨, 연장→勝負차기끝에 佛잡아 5-4

【마드리드8日=聯合】 유럽 축구의 명문 이탈리아와 西獨이 각각 슈퍼스타 파올로·로시(1m78) 칼·하인츠·루메니게(1m82)의 활약에 힘입어 제12회월드컵 축구대회 결승전에 진출, 월드컵을 놓고 12일 새벽3시(한국시간)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경기장서 숙명의 한판승부를 벌이게 되었다.

西獨은 9일 새벽 열린 준결승전서 돌풍의 강호 프랑스와 연장전까지 벌이는 120분간의 혈투끝에 3-3 무승부를 기록, 마지막 승부킥 대결에서 5-4로 이겨 극적으로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날 또다른 준결승전에서는 이탈리아가 스트라이커 파올로·로시의 2골로 강호 폴란드를 2-0으로 물리쳤다.

서독-프랑스의 대결은 월드컵 사상 일찌기 볼수없었던 드라마틱한 한편, 땀과피로 얼룩진 명승부였다. 6만5천여관중들은 승패가 확정된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못했다.

서독은 30분간의 연장전서 12분이 흐를때까지 3-1, 2골차로 프랑스에 리드당해 패색이 짙었으나 골게터인 루메니게가 황금의골을 터뜨려 3-2로 바짝 추격했고 6분후 피셔가 곡예사와같은 절묘한 오버헤드 슛을성공, 기적의 3-3 타이스코어를 만들어 승부킥대결에 들어갔다.

월드컵대회사상 처음으로 펼쳐진 이날 승부킥대결은 흥분의도가니였다.

토스를 한결과 프랑스가 이겨 선축(先蹴). 서독의 3번키커 슈틸리케가 실축하여 프랑스는 3-2로 앞섰으나 프랑스의 4번 디디에가 킥에 실패하고 서독 리트발스키가 성공시켜 3-3 同點이 되었다. 5번째에는 양팀 주장이 등장, 플라티니와 루메니게가 깨끗이 골인시켜 4-4가 되었으나 6번째로 나선 보시(프랑스)가 낮게 힘없이 때린볼이 서독GK 슈마허에게 잡혀 풍전등화의위기에 몰렸다. 서독의 6번 후루베시의 강한킥이 모서리에 꽂히자 서독응원석은 열광의 도가니였고 페널티를 실축한 프랑스의 디디에, 보시는 얼굴을 땅에떨어뜨린채 흑흑 눈물을 흘렸다.

가장먼저 실축했던 서독의 슈틸리케도 실축한 순간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는등 이날의 승부킥 대결은 희비가 점철된 드라머였다.

서독은전반18분 리트발스키의 득점으로 1-0으로 앞서나갔으나 27분에 페널티킥을허용, 플라티니에게 골을 내주어 1-1이 되었다. 후반은프랑스의 무대. 주장 플라티니와 알랭·지레스를주축으로한프랑스는 끊임없이 서독문전을 위협, 연장전에 접어들어 트레조르(3분)와 지레스(9분)가 연속득점, 3-1로 승리를 굳히는듯했다.

그러나 게르만의 저력은 여기서 솟아났다. 한가닥 희망을 루메니게에 걸었던 데어발 감독의 마지막 도박이 적중한것이다.

연장6분, 프랑스가 2-1로 앞서있을때 브리겔 대신에 그라운드에 들어온 루메니게는 다리부상을 무릅쓰고 분투, 연장12분에 귀중한 1골을 빼내 3-2로 추격함으로써 서독을 결승전까지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골이나 앞서있던 프랑스로서는 통한의 패전이었다.

첫 브라질전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이탈리아의 로시는 이날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2골을 올림으로써 개인득점레이스에서 서독의 루메니게와 함께 5골로 공동선두를 기록, 스페인 월드컵의 새로운 슈퍼스타로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34·38년 월드컵대회서 우승했고 서독은 54·74년 우승팀. 따라서 12일 결승전서 이기는 나라는 브라질에 이어서 두번째로 월드컵3회의 위업을 달성하게된다.

◇득점 과정

獨 1-0 佛	18분	리트발스키
1-1	27분	플라티니
1-2	93분	트레조르
1-3	99분	지레스
2-3	102분	루메니게
3-3	108분	피셔
伊 1-0 波	22분	로시
2-0	73분	로시

◇승부킥 血戰

프랑스		서독	
①재라스	○	칼츠	○
②아모로스	○	브라이트너	○
③로슈토	○	슈틸리케	×
④디디에	×	리트발스키	○
⑤플라티니	○	루메니게	○
⑥보시	×	후루베시	○

<西獨 5-4 로승리>

◇준결승전

이탈리아 2 (1-0, 1-0) 0 폴란드

서독 3 (1-1, 0-0, 연2-2) 3 프랑스 <승부킥5-4>

◇개인득점 (9일현재)

▲5골=루메니게(서독) 로시(이탈리아) ▲4골=보니에크(폴란드) 지코(브라질) ▲3골=키스(헝가리) 팔카오(브라질) 지레스(프랑스) 암스트롱(북아일랜드) ▲2골=파레카스, 날라시(이상 헝가리) 폴로스카, 크라테스, 에메트, 세르징요(이상 브라질) 로토, 파사레야, 마라도나, 베르토니(이상 아르헨티나) 리트바르스키, 피셔(이상 서독) 워크(스코틀랜드) 아사드(알제리) 해밀턴(북아일랜드) 샤크너(오스트리아)

伊·西獨 쟁패

12일새벽 宿命의對決

◇西獨피셔, 오버헤드킥 同點골 西獨의 클라우스·피셔는 프랑스戰 연장판에 멋진 오버헤드킥으로 극적인 3-3동점골을 성공시키고있다. 【세비에8日AP=聯合】

월드컵축구

佛, 延長종료 18분전까지 3-2리드… 同點허용, 劇的패배 땅치며 통탄

로시나 루메니게나

결승戰서 맞붙은 好敵手

스페인월드컵의 최고스트라이커는 이탈리아의 파올로·로시일까, 서독의 루메니게일까. 세계의관심은 제12회월드컵축구 우승국 向方과함께 두선수에 쏠려있다.

이들은 뚜렷한개성과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세계의 팬들을 사로잡고있다.

시대가 英雄을 탄생시킨다. 이들은 조국의 명예를 걸고 12일새벽 최선을다해 뛸것이다. 로시와 루메니게는 똑같이 해트트릭을기록했고 총득점도 각각5골로 선두를 다투고있다.

결승전에서 과연 어떤플레이를 펼칠것인가. 결승전서 더많은득점을 올리는 선수에게 MVP(최우수선수)의 영예가 돌아갈것이다.

똑같이 해트트릭·5골 記錄

◇로시의 환희 이탈리아의 스트라이커 파올로·로시가 폴란드와의경기서 2골을 성공시킨후 두손을 쳐들고 기쁨의 환성을 지르고있다。【AP聯合】

◇루메니게의突進 패전 위기에서 서독을구한 루메니게。 다리부상을 무릅쓰고 정신력으로 뛰고있다。

로시는 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때 혜성과같이 나타나 이탈리아를 4강에 도약시켰던 선수다. 당시 21세(56년9월23일생)였던 로시는 이탈리아 축구계에서 「황금의 사나이」로 불리며 77~78 국내시즌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누린 득점왕이었고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3골을 기록, 우상적존재로 클로즈업되었다. 키1m78, 몸무게74kg. 뛰어난 몸파워과 찬스를 잡으면 슛감각이 대시하는 선수이며 강렬한 슈팅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좁은공간을 예리한 드리블로 파고들어 예리한 슛을 날리는 「킬러」로 유럽축구계에서 「귀재」라는 평을 받았다.

유럽최우수선수상을 2년간(80, 81년) 연달아 받은 서독의 거인.

이번월드컵에서도 유감없이 진가를발휘하고있다. 지난21일 칠레와의 대전에서 해트트릭을 세웠고 서독에선락위기에서 구출하는데 결정적역할을했다.

올해26살, 1m82cm의 키에 74kg. 스피드와 돌파력, 골결정력등을 고루갖춘 슈퍼스타. 뿐만아니라 두뇌적 플레이로 항상 상대수비를 괴롭힌다.

칠레와의 경기서 3번째 골을 터뜨렸을때 펠레는 「천재의 골」이라고 격찬했으며 서독팀을 「루메니게와 10인의 로보트들」이라고 표현했다.

1차리그 알제리와의 게임서 오른쪽넓적다리에 부상을 당하고도 프랑스와의 준결승전까지 계속출전하고있다. 【安泰煥기자】

◇두선수 比較

파올로·로시		루메니게
1956년 9월 23일	생년월일	1955년 9월 25일
178cm	신장	182cm
74kg	체중	74kg
유벤투스	소속팀	바이에른뮌헨
77년	국가대표팀 발탁연도	77년
FW	포지션	FW
78년국내리그득점왕	수상경력	80. 81년유럽최우수선수

로마數萬시민 거리로, 車는 경적울려대며 狂亂 "무슨革命일어났나" 착각도

아가씨 끌어안고

◆…로마는 광란의 도가니였다. 수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국기를 흔들어대며 『이탈리아, 이탈리아!』를 외쳤으며 자동차와 스쿠터·자전거등을 타고가던 시민들도 이에 합세, 경적을 울려댐으로써 폭동이라도 벌어진듯한 분위기.

로마의 관광명소중의 하나인 트레비泉(愛泉)가에는 십여명의 젊은이들이 폴란드라고쓴 플래스틱해골을넣은관을 水葬시킬준비를하고 있었으며 일부 젊은이들은 지나가는 아가씨들을 끌어안고샘속으로 뛰어들기도하여 소식이늦은 관광객들을 혁명이일어났느냐고 묻기도했다.

聯政위기는 뒷전

◆…경제악화로 聯政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탈리아의 조바니·스파돌리니 수상은 이탈리아 선수들을 응원하기위해 마드리드로 가겠다고 선언, 聯政붕괴는 다음 이후로 넘어갔다.

이곳 신문들은 이탈리아가 계속 승리하는한 내각도 무사할 것이라고 조크.

佛감독, 西獨칭찬

◆…이달고 프랑스감독은 후반초 2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돼 리듬이 깨졌다고 푸념.

이달고 감독은 『이번 패배의 쓰라림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멤버교체로 선수들이 당황, 3-1의 리드에도 불구, 승리를 지키지 못했다』며 허탈한표정.

그는 또 서독이 연장 후반 동점골을 넣는 과정서 2명의 선수가 과욕을 부렸으나 네덜란드주심이 이를 벌하지않은 채 경기를 속행시켰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그는 『서독은 패배일보직전서 기사회생함으로써 강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들에게 축하를 보낼수밖에 없다』며 서독선수들의 감투정신을 찬양했다.

波 보니에크缺場이 차질… "이탈리아蹴球 速攻이 위협적" 베켄바우어 評價

西獨엔 伊가難敵

◆…前서독팀주장 베켄바우어는 서독에게는 이탈리아가 매우어려운 상대가 될것이라고 예언.

베켄바우어는 서독의 결승진출이 확정된후『이탈리아는 멋진축구를하며 그들의 속공은 위협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서독 프랑스전이 승부킥으로 끝나 유감이지만 어느한팀이 승리해야 하는게 스포츠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폴란드와 이탈리아간의 준결승경기 관람차 바르셀로나에 온 키신저씨는 콜롬비아가 개최권을 반납할 경우 가능하다면 캐나다와 공동으로 86년대회를 주최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美, 大會유치용의

◆…헨리·키신저 前美국무장관은 오는86년도 월드컵대회개최국으로 확정된 콜롬비아가 대회를 치를 능력이 없을경우 13회대회를 美國으로 유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勝負킥 대신 슛 아웃制를" 펠레 主張

펠레는 서독-프랑스전서 승부킥대신 슛아웃제도를 실시, 골키퍼에 보다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펠레는 이미 국제축구연맹(FIFA)에 슛·아웃방식을 채택토록 건의한바있다.

슛·아웃이란 北美축구리그(NASL)에서 페널티킥대신 도입하고있는 독특한 승부결정방법으로 키커가 30야드(오프사이드라인)에서 심판의 휘슬과 함께 공격을 한다.

이때 키커는 5초내에 슛을 해야하며, 골·키퍼도 마음대로 위치를 이동, 수비할 수있다.

"4년전보다 莫强" 베아르조트伊감독

우리는 마침내 결승에 진출했다. 이순간의 기쁨을 말로는 표현할길이 없다.

지금의 선수들은 4년전 아르헨티나대회서 4위를 차지했을때의 대표팀과 비교하는것은 이른감은 있지만 그때보다 더 훌륭한 플레이를 하고있다.

우리선수들은 시종 자신감에 넘쳐 사기면에서도 폴란드를 압도한 한판이었다. FW 그라지아니와 안토니오가 결승전에서 뛸수 있을지 걱정이다.

"게르만精神 승리" 데어발 西獨감독

프랑스는 어떤 찬사라도 받을 가치가있는 멋진팀이다. 그들의 플레이는 화려하고 위대했다.

우리는 3-1의 열세를 딛고 일어났다. 게르만 정신의 승리다.

루메니게를 막판에 기용한 결심이 오늘 승리를 가져왔다.

大學선발, 뉴질랜드에 憤敗

국제男子농구 金賢俊등 중거리슛 長身못눌러 76-75

82서울국제초청 남자농구대회 예선리그 이틀째경기가 9일 장충체육관서 속행, C조의 한국 대학선발팀은 金賢俊, 金仁五, 高明和의 중거리슛으로 장신의 뉴질랜드와 열전끝에 76-75로 분패, 1패를 기록했다.

뉴질랜드는 2연승을 마크, C조 수위로 결승리그에 진출했다. 대학선발은 전반 4번의 타이, 후반 15번의 역전을 거듭하며 분투했으나 리바운드 열세로 분패했다.

대학선발이 33개의 리바운드를 잡은반면 뉴질랜드는 53개를 잡아내 일방적인 우세를 보였다.

이번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인B조의美國대학선발팀은말레이지아를121-51로 완파하고 1승을 기록, 역시1승의 自由中國과 함께 결승리그에 올랐고 말레이지아는 2패로 탈락했다.

이날 대학선발은 초반 金賢俊의 폭발적인 슛으로 선제리드를 잡았으나 뉴질랜드는 빌·엘르레드, 톤, 본도프, 데이빗·메이슨등 장신 파워를 살려 14-14 타이를 만든후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한국은 金賢俊의 슛이 막히자 金仁文 高明和의 슛으로 추격, 전반을 38-37로 마쳤다. 후반 대학선발은 기동력과 파이팅을 발휘, 슛을 골고루 날려 15번의 역전을 거듭했으나 끝내 장신 파워를 막지못해 76-75로 분루를 삼켰다.

◇제2일전적

▲C조

뉴질랜드 76 (38-38, 38-37) 75 대학선발

(2승) (1패)

▲B조

미국 121 (61-31, 60-20) 51 말레이지아

(1승) (2패)

한국化粧品·商銀·星武 2위

實業야구 夏季리그

韓國化粧品, 商業銀行, 星武가 실업야구 하계리그서 우승팀 經理團에 이어 공동2위를 차지했다.

韓化는 9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대회최종일 경기서 4회말 1번金在博의 2게임째 연속홈런을 포함한 잇단 5안타로 결승4점을 얻고 浦鐵에 7-4로 승리, 5승3패를 기록했으며 星武도 9회말 金仁相의 결승희생플라이로 韓一銀에 1-0으로 신승, 역시 5승3패로 4승2무2패의 商銀과 공동준우승했다.

◇최종일전적

포철	300	000	010	4
한국화장품	300	400	00×	7

▲홈런=辛鉉碩(1회·3점·포철) 金在博(4회·2점·한화)

농협	290	000	000	11
제일은행	210	010	000	4
한일은행	000	000	000	0
성무	000	000	001	1

▲종합순위 ①경리단 6승1무1패 ②한국화장품·성무 5승3패, 상은 4승2무2패 ⑤농협 3승2무3패 ⑥한전·제일은 3승5패 ⑧포철 1승3무4패 ⑨한일은 1승2무5패

◇개인상 ▲우수투수=柳鍾天(성무) 5승2패·방어율2·86 ▲타격상=張孝祚(경리단) 26타수16안타(0·615) ▲감독상=李英吉(경리단)

메르데카蹴球 파견選手확정

대한축구협회는 9일 제26회메르데카대회(8월5일~22일·콸라룸푸르)에 참가할 한국대표선수단을 확정 발표했다.

▲코치=趙潤玉 ▲트레이너=盧興燮 ▲선수=崔仁榮 姜昌根(이상GK) 鄭泰榮 權五孫 全鍾壽 金漢李 李連浩 安星烈(이상FB) 金龍海 柳東春 李聖吉 李康錫 秋鍾浩(이상HB) 白承泰 邊一雨 金鍾世 洪錫琅 金鍾煥(이상FW)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59>

웅 달 ⑱

『그럼 자긴 그렇게 기술이 많아?』

오목이가 새삼 든든스럽고 미덥다는듯이 일환이를 살펴보며 감탄했다.

『그까짓것들이 뭐 그리 대단한 기술이라구』

일환이가 겸허하게 오목이의 시선을 뿌리치면서 화난듯이 말했다.

『기술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얻다 갖다 놓아두고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냐』

『그까짓 기술 없다구 굶어 죽을까봐』

『그래두. 우리 같이 못배운 사람들이 의지할게 기술밖에 더 있어. 나도 진짜 대학같은 엉뚱한 꿈 꾸지 말고 무슨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놓았으면 좋을 건데』

『그런 거 안따놓길 참 잘 했어. 나도 이것 저것 안해본 것 없지만 제법 자격증 딴 건 하나도 없어』

『그럼 냉동기술도 자격증 안따고 말 거야?』

『그렇게되기가십상이지, 괜히 돈 없앨 거 없잖아. 살림까지 차리게 됐는데』

일환이가 우울하게 말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림책에 나오는 것같은 예쁜집들이 잘 가꾼 마당속에 뚝뚝 떨어져서 늘어앉은 동네를 오목이는 신기한 듯이 내다보며 말했다.

『그럼 내가 미안하잖아. 내가 짐이 되어 자기 앞길을 막는 것 같아』

『너 때문이 아냐. 답답해서 미칠것같을 때마다 홧김에 시 딴데로 빠질데가 없을까해서 뭘 배우러 다녀오는게 내버릇이래두』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싫어?』

『그 일이 싫은 게 아니라 맨날 죽도록 일해봤댔자 겨우 밥 굶지않는 생활이 진저리가 나는 거지. 밥 굶지않는 거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안해야지, 하기 시작하면 미치겠는거야. 그래서 딴 일을 넘보지만 소위기술로서 할수있는 일이란 딴일 역시 밥 굶지않는 거 이상의 희망을 가질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자격증은 커녕 끝까지 배우는 것조차 시들해져서 집어치워버리고 하길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해왔나봐』

일환이가 남의 말 하듯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 고아원 아이들의 소망은 사회에 나가 기술 하나 갖는 거였잖아?』

『그것조차 없으면 도둑질이나 사기꾼 노릇밖에 할게 없으니까. 고아일수록 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때문에서 더욱 기술 기술 했던 것 같아』

『자기 변한 것 같아』

『나처럼 안변한 놈도 없어. 스스로 생각해도 답답해』

『아냐. 그전의 오빠는 착실한 게 타고난 성질처럼 자연스러웠었는데 지금은 그게 힘겨워 보여서 걱정이야』

『자기랬다, 오빠랬다, 반말을 했다, 존댓말을 했다, 네 마음이 시시로 흔들리고 있는 게 차라리 걱정이다』

『내일부터는 당신이라고 그래볼테니 염려마』

『거진 다 왔어』

『이렇게 좋은데서 우리가 살게되다니 꿈만같아』

일환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운전사에게 좌회전 우회전, 곧바로…등 방향을 일러주는 외엔 입을 꽉 다물었다. 다문입술 사이로 빠져나온 뻐드렁니가 신산스러워 보였다. 축대가 높고 철문이 거창한 집앞에서 차를 세우고 일환이는 묵묵히 짐을 꺼내렸다.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가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의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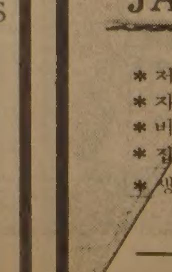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투자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 291-9590

ZAIDI& ASSOCIATES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림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e Screen Printing)
◉Engrau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합)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문의 ☎ : 533-2361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신 용 배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전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영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영업시간: 월~토 : 오전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645 Bloor St. W.
전화 : 531-4165(R), 530-0522(B).
조 지섭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Full Time Sales Person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으로 용모단정하고 영어회화에 능통한 Sales Oriented된 분을환영함.(관심있으신분 직접 문의)
고려보석
Eaton Centre

가게 맡아서 운영하실 분 구함(Gift Shop)
(Bathurst 와 Duffrin 중간지점) 776 St.Clair Ave. W
11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내방 바람.

Donut Shop Manager구함.
직접 내방 바람.
1485 Gerrald St. E(& Coxwell)

Driver & Salesperson 구함.
★ Commission basis.
토론토에 있는 각 Variety Store에 Juice 판매하실 분.
약간의 영어 요구됨. 운전면허 있어야함. 트럭은 제공받음.
돈벌기에 전망이 밝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전화 : 482-4807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여자분)
좋은가격과 일하시기 좋은장소 보장함.
전화 : 466-1461

Becker Store Manager 구함.
당분간 맡아서 보아주실분(경험자 우대)
전화 : 924-7696 (Mr. Lee)

Part Time 남자헬퍼 구함.
(Richmondhill 지역) 전화: 884-5433

아이스크림 가게 Helper 구함 (유경험자)
Franchise도 가능함. 전화 : 752-4366 Mr. 박

파실물건이 있으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하숙

Room & Board (New Markham, Finch, Scarboro지역) 하숙원함
독방과 식사제공 (1일 1식. 토·일요일은 2식)
연락처: 6시 이후 전화: 425-6068 Mr. Lee 월·수요일은 제외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 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개인지도

첼로 개인지도(레스리×휜치)
전화 : 492-7472 (Mrs. 연)

도자기 공예를 전공하실분 개인지도함
전화 : 233-9534 정 동 훈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사진 식자기 급매 (SAKEN SPICA-K)
교회 또는 인쇄소에 적당.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Hwy 10 × 던다스, 주 6일 매상 : $4,300
비데오머신 월 최저 $1,000 보장
(일요일 영업하던 가게였음)
리스 2년+5년, 렌트 $750, 가격 $5만+스탁(현금)
전화 : 276-3266

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500(m.) 리스: 5+5
아스킹: $39,000+스탁. 전화 : 636-1697

"Fast Food"
1. 도너스 & 써브머린. 주매상 : $8,000
2. Hamburger drive-in, 주매상 : $8,000
3. 식당 (Tavern & Banquet) 주매상 : $10,000
4. 식당 (Tavern). 주매상 : $6,000 중국음식점으로 개조도 가능.
5. Dry Cleaners Pick Up 주매상 : $500
Jim Sklavos
Pan-National Real Estate Ltd.
Phone: 461-1114

Variety Store for Sale(Georgetown, Ont)
주매상 : $6,500. Open한지 3개월 되었음.
경쟁없는 가게. 넓이 : 2,000s.f. 렌트 : $1,300(M.)
185 Mountainview Rd. N.
관심있으신 분 내방 바람. 1-873-1377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Ice Cream Store (Hotdog·Donut·Sandwich) 토요일 : Half Day. 일요일 : Close
1184 Weston Rd.(Eglinton & Weston)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식당 & 타번(Tavern) 매매
가격 : $55 000. 좌석 : 40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6-5990 (크리스)

Grocery Store — Private Franchise
Stock downpayment. S.W. of Toronto.
Best Offer. Phone: 259-2123 (이자예브)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1)New Franchise Ice Cream & Sandwich Bar.
도미니언과 씸슨 사이에 있는 커다란 Mall안에 있음.
Lease : 10년. Mortgage : $75,000. 12%. 5years.
(2)New Franchise. Hamburger(Yonge & Dundas)
주매상 : $9,000. Lease : 20년. 다운페이: $100,000
Patrick Ho. R.E.
Call Goe Sham
전화 : 593-8967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Nea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300~$4,800. 아스킹 : $26,000. Good Lease
Near Niagara Fall 전화 : 266-5895 (Mr. Kim)

Baskin & Robbins Ice Cream Store 매매
Franchise임. 리스 : 10년
전화 : 241-9593

Variety Store for Sale.(Bloor & Christie)
주매상 : $4,000이상. Good Lease.
Tom. 534-7785 Cosmos Realty Co., Ltd.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Air Conditioner 급매. General Electric.
8,000 B.T.U. 2주 사용했던것 임.
$265. 전화 : 431-6882 (Mrs. Kim)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300
전화 : 699-4804

성업중인 햄버거·레스토랑 급매
렌트 : 2년($385). 3년 남아있음.
아스킹 : $24,500 전화 : 251-1908 Mr. 리

(1)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 $500/M.
리스: 5+5. 아스킹 : $38,000+스탁.
(2)Hunts Bakery in Mall(open)
주매상 : $9,000. 6days Short Hour. 아스킹 : $220,000
다운페이 : $150,000. Best Bakery in Canada
(3)Coffee Shop in Building.
주매상 : $6,000. 5days Short Hours. 아스킹 : $210,000
다운페이 : $100,0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1)Hamburger Shop
30여대 자동차 파킹 가능한 건물임. 건물은 McDonald 이나 Harvey와 같이 단독 건물임.
Asking : $150,000(건물포함)

(2)Variety Store in Mall
주매상 : $5,500+Lotterio+Post Office.
Lease : 5년+5년 Option. Rent : $1,800(관리비. Tax포함)
영업시간 : 월~토(9:00 a.m~9:00 p.m) 일요일은 쉼.
Asking : $100,000+스탁

(3)Variety Store with Gas Bar & Post Office
건물 2층에 2Bed Rm. 3Bed Rm Apt가 있으며, 단독주택도 있음. 그곳에서 월세가 $760 수입됨. 현재 여자노인 혼자 경영 하루매상 $300이나 전에는 주매상 $5,500넘던 가게였음. 작은돈을 투자하시고 살수 있으며, Rent에서 나오는 돈으로 Mortgage 지불하고 남음.
Asking : $13,500. Mortgage : 1st. 11½% $72,000
2nd Mortgage도 가능함.
연락처 : Mr. 박(오샤와) 1-623-7000

가게를 맡아 운영해주실분 찾음.
보증금 요(스탁) 주매상: $8,000 이상
연락처: 491-9701. (오후 6시이후 292-8838 Mr. 신)

가게렌트

Gift Store for Rent
렌트 : $800/M. 넓이 : 800 s.f
663 Bloor St. W. 전화 : 531-1563(그레이스)

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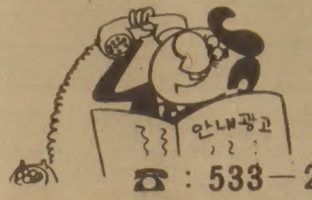
여권번호 : 426871
분실장소 : Hamiton Downtown지역
연락처: 526-0014 (방 용화)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아파트렌트

3 Bed Room. (M/$470).
7월말경 입주 가능 (Lawrence×Caledornia)
전화 : 651-4431



☎ : 533-2361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분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O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 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홍석인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Dixon at Kippling [illegible])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쇼×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도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한칼라현상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북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세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